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395.26 (+14.92)		717.97 (+5.0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330 (+0.082)		1235.50 (+3.40)



관련주가 상승·전방산업 회복세·다운사이클 단축

한파 속 봄 기운 도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 큰 상승
상반기 재고조정 후 회복 예상
스마트폰 출시, 中 봉쇄 해제 등
내년 다시 슈퍼사이클 전망도

반도체 산업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수요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지만 벌써부터 회복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 하반기부터는 예년 수준을 되찾아 내년에는 다시 ‘슈퍼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시는 AMD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폭의 상승을 보였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정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반도체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마이크론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TS

MC도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을 끝내고 나면 빠르게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실적 악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설 연휴 한 방송에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도체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산업 회복이다. 모처럼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지는 데다가,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IT 부문 수요도 다시 반등할 조짐이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서버 업계는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 반도체 수요 확

대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면서 DDR5 D램 보급이 본격화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사이클’이 대폭 짧아진 것도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산업 ‘다운 사이클’은 5년에서 3년, 1년으로 대폭 짧아졌다. 수요 전망이 정확해지면서 공급 과잉 가능성도 크게 줄었기 때문.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엔데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견조한 만큼 상반기 재고를 조정하고난 다음에는 완전히 균형을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김대환 기자

규제완화에도 거래절벽 여전 급매위주 매매가격 5억 하락

부동산 현장 르포

❶ 여의도 일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 현상도 여전하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보니 수 억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시범·한양아파트 신통기획 확정 재건축 오래걸려 문의 많지 않아
고금리에 월세 늘고 전셋값 하락
DSR 규제 등 완화 전환점 필요

지난 18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현지 부동산시장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보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했다.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일부 평형은 2021년 10월 대비 5억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었다. 전셋값도 대부분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결국은 금리인상이 멈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실수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하철 9호선 셋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린 시범아파트는 지난 1971년 12월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단지는 총 24개동, 1584가구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

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한다.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 확정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며 최고 65층, 25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면서도 “재건축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문의 전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매물은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79㎡가 1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10월 거래가격(20억1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이나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에서 이달 3억1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시범아파트 옆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4월 이후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세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105㎡가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전세가격(6억5000만원) 대비 2억원이나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양아파트를 최고 200m(적정 층수 54층) 이하, 10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한양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통기획 등 재건축 호재까지 겹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이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부담이 줄어 들거나 DSR 규제 등이 완화돼야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kdh@



설 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스

‘집권 2년차’ 尹, 국정동력 관건은 3대 개혁

〈노동·연금·교육〉

최대성과 해외순방 마무리
업무복귀 해 국정구상 집중
거대 야당 협치·소통 과제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스위스 해외순방 성과의 후속조치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집중해 UAE로부터 300억달러(약 37조원)의 투자유치와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100개사의 기업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한 첫 해외순

방에서 1100만달러(약 136억원) 가량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고,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철수, 탈북민 만나 “지난 5년간 북한 권 회피”
/사진 뉴스스
▲ 박지원,尹 향해 “무너진 민생경제에 국민 인내 안해… 경제 우선해라”

▲ 美,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수사 인지… 추가 정보 없어”
▲ 윤상현, 김기현 ‘여성 군사기분훈련’에 “젠더 공약 의심”



▲ 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대응 논리 정비 등 대비 ‘총력’
/사진 뉴스스
▲ 연금개혁·필수의료 본격 시행… 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

추경호 “하반기 3%대” 물가 낙관론, 금리 구두개입 등 ‘논란’

“1분기 지나면 물가 4%대 보이고 하반기 3%대… 물가 서서히 안정”

연초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어 4월 맥주 등 주류값 인상 앞뒤 ‘물가상황 안이하게 본다’ 지적 금리발언에 “부적절” 목소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

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 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中, 소비 상승에 올 성장률 4%후반 예상”

● 차이나 뉴스&리포트

소비 1%p 늘면 韓성장률 0.2%p ↑
여행중심 2분기 소비 10% 증가전망

올해 중국의 소비가 크게 반등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소비의 파급력은 대외적으로도 막강하다. 중국 소비가 1%포인트(p)만 높아져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p 올라간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가 작년 1.5%에서 올해 6.3%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하고, 일부는 8%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경제 재개방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 등이 소비를 촉진하는 가운데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올해는 중국의 소비가 크게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 후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19확산이 진정되면서 오는 2분기에는 여행부문 등을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거리가 춘절 장식으로 가득차 있다.

/신화·뉴스스

중심으로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면역이 빠르게 형성된다면 장기간 억눌려온 수요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관광의 경우 중국발 승객을 제한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국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 소비의 성장 기여율은 65%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8%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올해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

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도 중국 소비가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싱가포르 성장률이 0.7%p, 태국 0.4%p, 한국 0.2%p 높아지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약요인도 여전하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대유행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재개방 조치를 단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노년 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면 소비를 꺼리기 시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 이상이 재개방 이후 외출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성능 메모리 확대로 실적 악화 상쇄

》1면 ‘한파 속 봄 기운 도는’서 계속

상반기 흑한기를 얼마나 ‘잘’ 나는지가 관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8Gb 3200MHz 평균 시세는 1.8달러대로 떨어졌다. 트랜드포스는 1분기까지 고정 거래 가격이 1달러 후반대로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한바 있으며,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2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까지도 감산에 돌입했지만, 삼성전자만큼은 감산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나마 고성능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

면서 실적 악화를 상쇄하는 분위기다. 16Gb D램 사용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DDR5 가격도 DDR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보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데이터센터 구축이 속도를 내는 상황, HBM과 CXL 등 차세대 메모리도 GPU와 서버에 도입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재웅 기자 juk@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 개선하기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인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

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와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 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미래차 이끄는 'K-전장산업'

LG IVI·배터리 삼성 반도체·디지털 콕핏 현대차 플랫폼·자체생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국내 산업계 높은 전장 기술력 축적
글로벌 완성차 업계 존재감 커져
미래차시대 새로운 전성기 기대

미래차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발빠르게 기술력을 축적한 국내 산업계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전자 업계도 수준 높은 전장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전장 부문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 2013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10년 만이다.

LG그룹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도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LG마그나와 위트레인은 물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도 전장 비중을 높이는 모습이다.

LG는 일찌감치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집중 육성해왔다.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에는 그룹 차원에서 컨트론타워를 신설하며 속도를 높였다.

LG의 전장 사업은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LG전자가 오랫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과 가전 사업을 통해 축적한 모터 기술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바일 사업도 LG전자와 LG이노텍에서 통신과 센서 모듈 등으로 노하우를 계승 발전했다. 자동차 조명 기술이 중요시되면서 2018년 인수한 ZKW 역할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LG전자는 완성차 개발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완성차를 만들어 OEM으로 납품하는 방식에



LG 옴니팟.



/LG전자 '레디케어' 솔루션

/하만

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면 완제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폭스콘보다는 부품만 공급하는 LG이노텍에 가깝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 애플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나온다.

실제로 LG 전장 사업은 미래차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전동화 플랫폼과 IVI OS만은 배제하고 있다. 전기 모터 등 파워트레인 솔루션과 배터리를 제공하지만, 새시 등을 모아 구성하는 전기차 플랫폼은 포트폴리오에 없고 앞으로도 개발 계획이 없다. 완성차 업계 미래 전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래차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일부 완성차 업계가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한 가운데, 최근 마그나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고도화된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6G 통신 기술 개발에도 앞장섰다.

삼성전자는 IVI를 포함한 '디지털 콕핏'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장 기업인 하만과 함께 최첨단 기술을 구현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만 역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삼성전자 전장 사업의 강점은 단연 반도체 기술이다. 고성능 SoC(시스템 온 칩)와 카메라 모듈, 메모리 등을 활

용해 다양한 편의 기능과 자율주행까지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퀄컴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계들도 전장 사업에 힘을 쏟는 상황, 삼성전자는 통합 솔루션을 경쟁력으로 내보이는 모습이다. 모바일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한 '텔레매틱스' 성능과 함께,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활용한 커

넥티드 서비스도 준비된 상태. 필요에 따라 타이젠 OS를 전장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자 업계가 전장 시장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를 대표하는 완성차사 현대차그룹은 미래차 기술 대부분을 내재화하는데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원자재인 철강을 시작으로 모터와 새시, 물론 IVI와 OS까지 완성차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직접 만들고 있다. 전동화 플랫폼 'E-GMP'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았고, IVI 시스템도 꾸준히 고도화한 덕분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역량으로 성장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전자 부품만 공급받으면 된다.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역량을 바탕으로 전장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에 새시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오랜만에 해외 업체와 거래를 재개했다.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도 올해 말 미국에서 '로보택시'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준이 높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금융위, '깜깜이 투자' 막는다
금융상품 위험등급 기준 통일

금융위 위험등급 가이드 라인 마련
1~6등급 구분... 4분기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구가 푸르게 바뀌는 건
녹색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래요!

푸른 지구를 향한 모두의 소망
더 이상 꿈으로만 남지 않도록,
LS ELECTRIC이 푸른 마술을 시작합니다.

스마트에너지 글로벌 리더 LS ELECTRIC이
ESG 경영으로 그 꿈을 앞당기겠습니다.

LS ELECTRIC

최태원 10년 전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 다보스서 호평

〈SK그룹 회장〉

사회성과 비례 현금인센티브
올 다보스서 성공모델로 평가
“SK ESG경영, 독창적·효과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ProgressCredits·SPC)’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받았다. SPC는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의미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년 전 처음 제안한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재계 리더들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적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

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게 지속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Agenda article)를 통해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의 스타트업·소셜혁신기업 펀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무국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전통적 CSR(사회적책임)에서 탈피,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소셜 임팩트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SK는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가

치에 비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사무국은 이어 “이로써 SK는 정보기술(IT)에서 농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더 큰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특히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측정 관련 노하우는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며 “이 같은 측정 결과 SK그룹의 2021년 사회적가치 창출 총량은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이 최 회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사회성과인센티브가 결국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가치(SV)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왔다고 평가한 것이다.

SK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한 결과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

개 분야에서 총 3275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인센티브로 총 527억원을 사회적기업들에 지급했다. 재원은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SK 멤버사들이 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런 성과에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사례연구를 게재했다. 정선문 동국대 교수(회계학)와 신재용 서울대 교수(경영학)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다룬 논문도 세계 최고 권위의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지난해 10월 게재됐다.

비영리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관계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협력사업을 추진중이고, 사회성과인센티브 국내외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김포시공고 제 2023-174호

김포 유현지구 구역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0-176호(2020.09.10.), 김포시 고시 제2021-230호(2021.09.30.)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2-119호(2022.06.03.)로 실시계획 인가된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김포시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명: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기정) 149,424㎡ → 변경) 151,170㎡ (증 1,746㎡)

라. 수용규모: 2,020세대 / 5,333인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한지처분일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9,424	증) 1,746	151,170	100	
주거 용지	소 계	94,484	-	94,484	62.5	
	공 동 주 택	85,244	-	85,244	56.4	
	근린생활시설	4,730	-	4,730	3.1	
	준 주 거	4,510	-	4,510	3.0	
종교용지	종 교 용 지	2,337	-	2,337	1.5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52,603	증)1,746	54,349	36.0	
	도 로	11,758	증)1,746	13,504	8.9	하천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1,543	-	1,543	1.0	
	주 차 장	1,340	-	1,340	0.9	
	공 원	17,112	감)1,674	15,438	10.2	유수지중복결정
	녹 지	6,513	-	6,513	4.3	
	하 천	14,337 (460)	-	14,337 (460)	9.5	도로중복결정
	공공청사	-	증)1,674	1,674	1.1	
	유 수 지	(660)	-	(660)	-	공원중복결정

사. 사업비: 기정) 68,936백만원 → 변경) 141,449백만원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성 명: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허진욱)

◦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2, 305호(풍무동, 프라임발복합상가)

나. 시행방식: 한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풍무동 행정복지센터(031-5186-3657)

5. 「도시개발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UAE·다보스 성과 잇는다 산업부, 수출 촉진 현장행보

연초~내달 초까지 현장행보만 94건
간부들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고
후속 수출·투자 확산 위해 논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포럼 계기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행보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오는 2월 초까지 계획된 현장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들은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UAE 순방계기 61억달러 규모 MOU와 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 고도화에 나섰고 오는 26일 산업대전환 운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2월 중엔 한·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지난 18일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기계 등 10대 업종, 5대 기능 릴레이 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박일준 2차관은 19일 과천 L-PG-수소 융복합 수소중전소 현장 방문에 이어 24일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에 이어 내달 2일엔 대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점검과 업계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대책단을 출범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와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1~2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9.3%를 기록 새해 첫 달부터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와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UAE 순방 후속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월 통상협력국장이 비즈니스상담회 1100만달러 수출성악이행을 점검한다. 원전·전력, 방산, 보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조기 수출방안을 논의하고, 상담회 참여기업을 방문해 애로 사항 점검에도 나선다. 이어 제조산업 정책관이 내달 2일 첨단제조 이니셔티브 후속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분야별 협력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공장과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외연 확장’ 나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결선투표가 변수

결선투표 없이 대표 선출 행보 풀이
김기현 의원, 슬로건 ‘연·포·탕’ 홍보
안철수 의원, 북한이탈 주민 간담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이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당권 경쟁에서 변수를 차단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은 설 연휴 기간 지역 주민과 만나거나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다양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연포탕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연포탕’(연대·포용·통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저는 국민 민(民)자를 써 민심 후보”라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윤석열 대통령 뜻을 잘 존중하고 소통하며 당을 이끌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연포탕 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이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사진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철새 정치를 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 인생을 살지 않아서 분명히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당을 하나로 묶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친윤’(親 윤석열), 비윤(非 윤석열)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야말로 윤심 팔이 하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

만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저 처럼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과 민심만 보며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가진 공천 기준에 있어서 도덕성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당에 대한 공헌 및 의정 활동,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 민심에 부합하게 활동했는지 여부도 반영돼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차기 총선 공천 기준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간담회’를 했다. 떡국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탈북민에 대한 관심,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조차도 회피를 했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때”라며 “지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셨다”고 간담회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느끼는 바, 또는 앞으로 발전하고 싶은 방향을 들려주면 꼭 참고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전통적인 당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관심 갖는 ‘북한 인권’ 문제를 챙기면서, 지지 기반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만나 북한 핵,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사이버 안보, 무인기 드론, 중동 평화 등 ‘안보’ 현안 관련 대화도 나눴다. 안 의원은 천 이사장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눈 점에 대해 소개한 뒤 “천 전 수석과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외연 확장과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거나 특정 주자와 연대하게 되면 표심이 갈리게 되고, 결국 결선투표로 차기 당 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이 다자 구도로 흐르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나 전 의원은 25일 오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나 전 원내대표 입장 발표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설 민심 청취한 민주당 “尹정권 민생 파탄”

국민들, 난방비 폭탄에 걱정 토로
尹 UAE 순방 발언 두고 “국정 불안”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민생 파탄·국정 불안·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고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것이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론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를 가정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이 대폭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유독 컸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막바지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국정이 불안하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묻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란은 우리나라 기업 2000개가 활동을 하고 하루에 60척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이란이 한국의 문화 한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면서 “중동 국가의 다른 모든 나라의 인구를 합해도 이란 인구보다 못하다. 그만큼 중동의 핵심 국가가 이란이다. 경제 교역규모도 마찬가지다. 이란을 적으

로 돌리고 어떻게 중동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를 둘러싼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보복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고, 노조 때리기 등 반대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살하겠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밥먹듯이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尹 순방, 경제적 실용외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두고 24일 ‘경제적 실용 외교’로 평가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국’ 발언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자, 집권여당 당 대표 후보로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친윤(親 윤석열) 단일 후보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지구촌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로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향도 이와 틀리지 않다”며 “해외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플랜트, 방산 및 ICT 분야 등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올 한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외교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적 실용외교에 집중했다”고 평가한 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념에 종속됐던 문재인 정권의 반쪽짜리 외교를 경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안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는 해외 비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한 UAE의 300억 달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다보스포럼에서 홍보전을 펼쳤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부른 나비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尹, 차질 없는 후속조치·지원방안 등 지시

》1면 “집권 2년차”尹’서 계속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MOU를 경제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

아 이번 해외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풀어나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추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다. 임금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혁’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을 향해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회동을 종종 이어왔으나, 야당과의 회동은 지난 2일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던 것이 유일하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펫·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디지털 활용 사기예방 총력

2023 보험사 경영전략

DB손해보험

정종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신수의 발굴, 지속 혁신” 강조
라이더·로봇 등 특수시장 공략
디지털 사업 조직 신설도 추진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경영효율 기반의 사업역량 우위를 통한 톱(Top)1 도약이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새 수장을 맞이했다.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12년간 이어온 김정남 부회장 체제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이 새 대표 자리에 올랐다. 정 사장은 1987년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에 입사해 법인사업 부문장, 개인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진행한 DB손해보험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는 35년 근속상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의 새해 경영전략은 ▲채널별 핵심영역의 Top1 포지셔닝 도전 ▲CSM 관점의 상품전략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제회계기준(IFRS) 17 수익성 확보를 위한 효율관리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아울러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등 디지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라이더 보험·펫보험 등 시장 공략

지난해 DB손해보험은 라이더 보험, 펫보험 등 특수 시장 공략에 힘을 쏟으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뤘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은 가격 인하, 혜택 강화를 통해 기존 소비자 지킴기에 나섰으며 새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래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메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라이더 보험 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륜차 배달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한문철TV와 공



DB손해보험 사옥

동 마케팅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공개한 ‘참좋은라이더+보험’은 한문철 변호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해 공신력을 높였다. 기존 상품에 경찰조사와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펫보험 시장 진출 또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구시와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유기견 입양 가정에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상품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단행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피부질환과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수술비를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펫보험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기견 펫보험 지원 사업은 데이터 확보와 상품 홍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보험도 선보인다. 야외 자율주행 로봇에 종합보험을 적용했다. 보행자는 물론 자동차, 이륜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관한 보상을 지원한다.

정 사장은 “펫보험과 헬스케어 등 신수의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특수 시장을 공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하려는 전략이다.

◆디지털 전환과 보장범위 확대

지난 2021년 DB손해보험은 창사 이래 최초로 세전 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자동차 보험 손해를

과 사업비율 개선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1등 보험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과 신상품 출시에 몰두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기 예방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판매 창구 확대와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우선 큐핏과 SAS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DBT-시스템’을 론칭했다. DB-T시스템은 보험금 부당 수령 예방 프로세스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불특정 개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혐의자 간 공모관계 분석 기능을 담았다.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미캠핑월드’도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가정의 달 등 기념일에 맞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유입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간편고지보험을 기반으로 보험업 강화도 이루고 있다.

정 사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믿음으로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돈 불리며 무료보험까지... ‘일석이조’ 어린이 적금 주목



설 명절 이후 세뱃돈을 넣어 둘 수 있는 어린이 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토이미지

KB ‘영유스’ 적금 최고 연 3.65% 가입 땀 DB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예금금리가 오르며 설 명절 일가친척에게 받은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어린이 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적금은 대부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무료보험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 영유스(Young Youth) 적금상품을 판매한다.

KB Young Youth 적금은 19세 미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다.

금리는 12개월기준 2.35%며 ▲KB

국민은행에 등록된 가족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연 0.2%포인트(p) ▲자동차제입금건수 8회 이상인 경우 연 0.1%p ▲해당계좌로 아동수당을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연 0.1%p ▲해당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0.3%p ▲고객 연령이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 경우 연 0.5%p ▲지문등록후 사전 신고증을 제출할 경우 연 0.1%p를 제공한다.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고 연 3.65%다.

KB Young Youth 적금은 가입시 DB손해보험 자녀안심보험을 무료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MY 주니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고

객으로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년간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연 3.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0.5%p ▲자동차제입 0.5%p ▲아동수당 우대 0.3% ▲재예치우대 최대 0.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요건충족시 DB손해보험 프로모고객 사랑보험에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의 기본증명(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이 필요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연말정산 전용 ‘AI상담봇’ 오픈

우리은행은 ‘AI 상담봇’을 통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금융그룹의 고객중심 디지털플랫폼 확장 전략에 따라 편리한 AI 상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국제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에 맞춰 전용 서비스를 오픈했다.

‘AI상담봇’은 우리은행이 현재 서비스 중인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중 하나로 STT(음성인식), TTS(음성합성), NLU(자연어이해) 등의 기술로 ‘AI상담봇’이 자연스럽고 고객과 음성으로 대화 형태의 상담을 진행한다.

확대 실시하는 연말정산 전용 서비스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연말정산 상담을 요청하면 ‘AI상담봇’이 먼저 응대해 ▲대출 소득공제 ▲소득공제용 납입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인증서 발급 등의 7가지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상담원 연결 과정 없이 즉시 안내받을 수 있게 알림톡으로 제공한다.

또한 ‘우리WON뱅크’의 AI챗봇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연말정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용 AI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연말정산 기간 동안 고객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미래형 고객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우리금융 사회공헌 캠페인 조회수 1400만회

우리금융그룹은 새로운 사회공헌 PR 캠페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영상이 약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400만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금융그룹의 모습을 신입사원으로 변신한 광고모델 아이유가 함께 해 화제가 됐다.

또한 ‘재난재해시, 긴급 출동’, ‘우리 동네 선한가게 지원’ 등 우리금융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보여주 큰 관심을 얻었다. /이승용 기자

임금상승률 높다면 DB형, 임피 앞뒀다면 DC형이 유리

금감원 Q&A

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Q. 저는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했는데 DC형으로 전환할지 고민이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이며,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반면 DC형은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연금 종류를 선택 혹은 전환할 때 다음의 3가지를 유의하세요.

첫째,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퇴직연금을 선택하세요.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의 경우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DC형

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DC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연수×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후에는 줄어드는 평균임금 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구남영 기자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SK에너지와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수주 호황’ 조선업계, 인력난 대응 ‘협동로봇’ 도입 확산

한국조선해양 일주일새 7척 계약
대우조선·삼성중도 목표달성 무난
업계, 역대급 실적에도 인력난 지속
안전성 갖춘 협동로봇 투입 가속화

지난해 ‘수주 잭팟’을 터트린 국내 조선업계가 새해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꽃간을 채워나가고 있다. 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새해 가스운반선 시장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8만8000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2408억원 규모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6일, 18일 LNG운반선 각각 3척과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19일 LPG운반선 2척을 추가로 수주하며 일주일 새 가스운반선 총 7척의 계약을 따냈다. 이번에 수주한 LPG운반선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용접 협동로봇을 작업자가 조작하고 있다.

업에서 건조돼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선박은 암모니아 적재 옵션을 적용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을 수주해오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전 세계서 발주된 LNG운반선 총 173척 가운데 가장 많은 44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8척, 삼성중공

업은 36척을 수주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도 무난하게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클락슨 포캐스트 클럽’에서 올해 전세계 LPG운반선 발주가 54척에 달해 지난해 40척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업계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장에 협동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업계는 일감은 늘어나지만 인력난을 둘

리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조선해양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 조선해양 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계 부족 인력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8000명, 올해는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협동로봇이 급부상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10여년 전 산업현장에 공개됐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선 등 제조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안전성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주목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대조립 공정에 ‘협동로봇’을 도입했다. 협동로봇은 이상전류나 충격을 스스로 감지해내는 안전기능을 갖춰, 사람과 함께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다. 개선한 협동로봇은 제어기 무게를 절반 이상 줄여 운반이 쉬워졌고, 토치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위빙(Weaving) 기능을 보완해 수직은 물론 수평 용접까지도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0월 현대로보틱스 등과 공동연구한 ‘소조립부재 로봇용접 시스템’을 구축해 소조립 용접 완전 자동화의 첫발을 뗐다. 산업용로봇

6대가 받침대에 배치된 소조립 부재를 동시에 용접하고, 최첨단 영상처리 기술로 용접선 궤적을 자동 생성한다. 또 수평, 수직, 돌림 등 전 방향 용접이 가능하고, 디지털 방식의 특수 용접기법(GMAW, 가스메탈아크용접)을 통해 슬래그 발생을 최소화해 품질을 높인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도 잘라진 철판을 이어붙여 블록을 제작하는 용접 공정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한다. 소조립-중조립-대조립으로 나뉘는 조립 공정에서 기계의 힘과 사람의 손길이 모두 필요한 중조립 공정에는 협동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탄소강판 용접 협동 로봇을 개발해 올 초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선박 배관 조립공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협동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작업자가 직접 옮기고 수동으로 위치를 맞추며 용접했다.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협동 로봇의 경우는 충돌 안전 분석을 통해 안전 펜스나 안전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도 작업자가 협동 로봇과 함께 용접 협동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자와 협업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친환경 ‘리튬황배터리’ 상용화 성큼

자원 풍부, 저렴한 황 양극 소재
에너지 밀도 높고, 가벼운 특징
항공모빌리티 분야 활용도 높아
카이스트·서울대 등과 기술협력

LG에너지솔루션에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황배터리’ 상용화에 앞서가고 있다.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과 관련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리튬황배터리는 양극재로 황, 음극재로는 리튬메탈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황을 양극소재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어 ‘싸고 가벼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발트·니켈 등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옮겨 다니며 충·방전이

이뤄지는 원리라면, 리튬황배터리는 8개의 황 원자로 구성된 고리가 연속적으로 환원 반응을 일으켜 황화리튬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리튬황배터리는 특히 높아지는 에너지 밀도만큼 무게도 줄일 수 있어 드론이나 항공기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운송 수단)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 2020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고도 장기 체공 태양광 무인기에 리튬황배터리를 탑재해 성층권 최고 고도에서 총 13시간의 시험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리튬황배터리는 시험비행 당시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지상의 25분의 1에 불과한 낮은 대기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

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9일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우진 교수 연구팀, 포스텍 한정우 교수 연구팀과 리튬황배터리 기술 고도화에도 성공했다.

리튬황배터리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무거운 전해액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해액이 줄면 전해액 오염이 심해져 리튬 이온 전도도가 낮아지고, 전기화학 전환 반응 활성이 떨어져 높은 용량과 구동 전압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카이스트 등과 전해액 오염을 줄이는 철 원자 기반의 기능성 양극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철은 가격이 매우 저렴한 소재로 앞으로 리튬황배터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중형 노트북용 터치 일체형 OLED 개발

삼성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선풍
OCTA 적용, 이달부터 양산 돌입

삼성디스플레이가 노트북용 터치 OLED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대면적’ 터치 일체형 OLED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OLED에 적용됐던 터치 일체형 기술, ‘OCTA’를 중형 노트북용 OLED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OCTA는 패널 표면에 터치를 인식하는 필름 대신 패널 내부에 터치 센서를 넣는 기술이다. 플라스틱 소재 터치 필름과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두께와 무게를 줄이고 친환경성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터치 패널이 차지하는 두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대면적’ 터치 일체형 OLED를 개발했다.

께 비중은 6~11% 수준, OLED 노트북 휴대성과 디자인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게 삼성디스플레이 설명이다.

특히 이 기술은 다음달 공개될 차세대 갤럭시 북 시리즈에 탑재돼 성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그램, 10년 맞아 디자인 확 바꿨다

2023년형 그램 신제품 라인업 출시

LG그램이 10년차를 맞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했다.

LG전자는 2023년형 그램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그램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무게 1kg을 넘지 않는 초경량 노트북으로 출시됐다.

2023년형은 성능 뿐 아니라 디자인도 한층 새롭게 혁신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LG 그램 스타일은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그램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은 한층 극대화했다. 외관에는 였로라 화이트 색상과 코닝 고릴라 글라스를 적용했고, 키보드에는 히든 터치 패드를 탑재했다.

OLED 디스플레이도 처음 도입한다. LG그램 스타일 16은 16대10 화면비에 16형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로 0.2ms 응답속도에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LG전자는 LG그램 스타일을 새로 출시하는 등 2023년형 LG그램을 출시한다.

기본 모델인 LG그램은 성능과 휴대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 16대10 화면비 WQXG 해상도 IPS디스플레이에 엔비디아 3050 GPU, 인텔 13세대 프로세서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5와트 출력 스마트앰프로 고성능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제주항공 기내식 ‘불고기덮밥·캔맥주’ 인기

‘불고기덮밥’ 판매량 28.8% 차지

제주항공 인기 기내식으로 ‘불고기덮밥’과 ‘캔맥주’가 꼽혔다.

2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주문 기내식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전체 판매량 5만 4600세트 가운데 약 1만5700여 개가 팔려 28.8%의 비중을 차지한 ‘불고기 덮밥’으로 조사됐다. 또 7000여개가 팔린 ‘오색 비빔밥’, 5200개가 팔린 ‘구름 위의 샌드위치’가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 사전 주문 기내식은 출발 72시간 전까

지 구매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제주항공 국제선 전 노선의 예약 고객이라면 구매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불고기덮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불고기를 재료로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전 예약없이 음료와 스낵을 살 수 있는 ‘하늘의 편익점’ 에어카페는 지난해 총 46만개 판매 개수를 기록했는데, 그중 캔맥주가 4만4000캔 팔려 가장 인기가 많았고 컵라면이 3만6000개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LNG 전 밸류체인 연결… 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사업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합법인 출범

친환경 에너지전문기업 입지 강화
연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 상회
그룹내 핵심 계열사 위치 공고화
탄소중립 주도 친환경 사업 확장

최근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체계 수립 및 친환경 전문기업 변화 기조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회사가 가진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발휘해 그룹의 친환경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위해 회사의 핵심사업인 에너지, 철강, 식량에 더해 친환경 미래사업에 투자와 개발을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사인 포스코에너지와 합병을 마치고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종합상사’에서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택 부회장

넓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법인은 연간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를 상회하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는 '21년 국내 기업 매출액 기준 11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룹 내에서 포스코와 함께 핵심 계열사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합병을 통한 주요 효과는 ▲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글로벌

별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 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로 요약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현금창출능력(EBITDA)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 7000억원 대로 향상되고, 부채 비율도 200%에서 160% 수준까지 축소되어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된다.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위상도 한층 강화된다. 합병을 통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연결하게 된다.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성장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커진 외형과 향상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 친환경 바이오사업 진출, 수소를 이용한 저탄소 생산·발전체계 구축 등 유망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에너지사업에서는 LNG로 활용 가능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해외 신규 가스전을 지속 개발하고 국내의 발

전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그룹 탄소 중립을 주도하기 위해 육·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장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기로 했다.

철강사업은 글로벌 톱클래스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성장산업의 신수요를 적극 개발하면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그룹의 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량사업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해외 곡물 산지에서 조달 능력 증대와 수요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 기반을 강건화 함으로써 식량안보 위기에 적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사업은 구동계 전문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중국, 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회사 차원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그

룹내 친환경사업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새 수장을 맡은 정택 신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영업,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대우에 입사하여 대우인터내셔널 쿠알라룸푸르지사장,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을 두루 거쳤다.

정 부회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익힌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포스코 대표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병에 따른 조직을 조기 안정시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책임자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정 부회장은 “합병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이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서로를 배려하여 유대감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글로벌 종합회사이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3월 말부터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고금리로 자본 조달 부담 높아
유료화 통해 수익성 문제 개선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다. (Love is sharing a password.)”

넷플릭스는 최근 가정 구성원이 아닌 데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조만간 유료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에 대한 유료화는 3월 말쯤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독보적 1위의 ‘배짱 영업’이란 불뉘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는 또 지난해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효과로 지난 4분기 신규 가입자가 ‘경중’ 증가했다. 이는 광고요금제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만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디즈니도 올해 이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물리는 정책



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주주서한을 통해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을 가구 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계정 공유에 대한 유료화를 3월 말 경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의 3국가에서 계정 공유에 대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동거 가족에게만 계정 공유를 허용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명까지 계정 공유를 허용했다. 넷플릭스가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계정 공유를 막지 않은 것은 계정 공유가 이용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계정 공유에 대해 유료화에 나선 것으로서 수익성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수익성 문제가 생긴 것은 급격히 오른 금리가 큰 영향

을 줬다.

OTT 업체들은 그동안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해 이용자 증가에 초점을 맞춰 회사를 경영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OTT 시장에서 가입자수보다는 수익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난해 3분기 넷플릭스의 결제 구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만명이 줄었다. 결제 구독자수까지 줄며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같이 계정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가입자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공동 CEO로 광고요금제를 주도해온 그렉 피터스 최고운영책임자(COO·사진)를 선임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광고요금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 CEO는 그동안 콘텐츠를 담당해왔던 테드 서랜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해온 그렉 피터스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채윤정 기자 echo@



LGU+ “반려동물 용품 쿠폰·적립금 받아가세요”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용품 전문몰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동물 용품 쿠폰과 적립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어바웃펫에서 DBTI 성향에 맞추어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산책용품과 장난감 등을 추천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

버튼 하나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홈 구현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국내 출시

더 쉽게 스마트홈을 구현해주는 제품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5일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에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하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품 뿐 아니라 매터, 지그비 등 다양한 제품을 연동할 수 있다.

제품 상단에 ‘스마트 버튼’은 맞춤형 루틴 기능을 바로 실행해준다. 짧게 누르거나 두번 누르기, 길게 누르기 등 터치 방식으로 앱 실행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리모컨 등도 바로 찾아준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지원해 스마트 버튼을 두번 눌러 제품에서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따로 구매해 장착할 수도 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 15W로 갤럭시



삼성전자는 25일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국내에 출시한다.

시 스마트폰과 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냉각팬을 내장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충전 효율도 높였다.

아울러 무선 충전시 루틴을 동시에 실행하는 기능도 더했다. 침실에 누워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전자기기 등을 끄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음달 28일까지 제품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스마트태그나 동작감지센서 등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김재용기자 juk@

컴투스 ‘크로니클’ 글로벌 공략 속도낸다

내달 ‘타이페이 게임쇼’ 참가
작품 속 배경 재현 부스 준비

컴투스가 소환형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의 타이페이 게임쇼 참가를 알리면서 글로벌 공략에 속력을 낸다.

컴투스는 24일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타이페이 난강 전시장에서 열

리는 국제 게임 전시 행사 ‘타이페이 게임쇼 2023’에 참석해 ‘크로니클’ 부스를 선보인다.

해당 부스는 작품 속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크로니클 부스를 방문한 글로벌 팬들에게 현실감 높은 경험을 선사한다.

소환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대만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함께 하



컴투스 소환형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

/컴투스

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지 팬들에게 ‘크로니클’을 미리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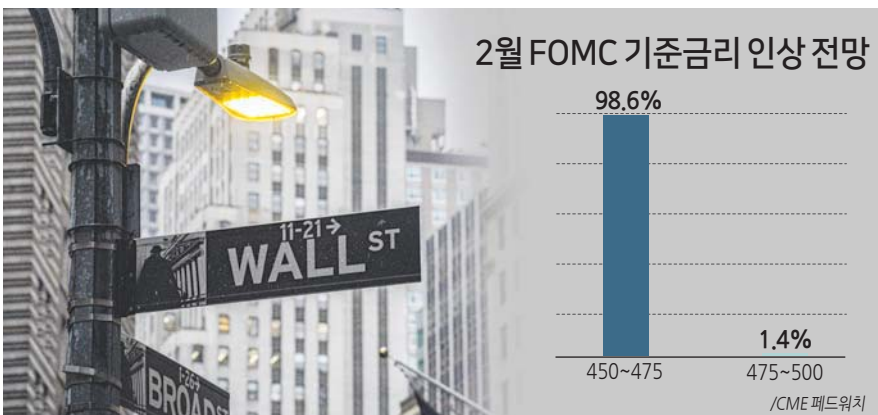
증시 변동성 파고 높아진다… 美 FOMC·빅테크 실적 촉각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우세
시장선 ‘베이비스텝’ 기정사실로
넷플릭스, MS 등 실적 발표 앞뒤
“낙관보다 보수적 스탠스 취해야”

설 연휴 이후 뉴욕 증시 등 해외에서 진행될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2395.26에 장을 마쳐 지난해 말보다 7.10% 상승하며 연초부터 뚜렷한 강세장을 구현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물리면서다. 앞으로 FOMC 정책결정과 실적 시즌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설 연휴 기간 미국 등 선진국 증시 변화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애



플, 테슬라 등 국내의 주요 기업 실적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간 코스피 등락 폭으로 2230~2450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달려 약세,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반등했으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는 25bp(1bp=

0.01%p) 기준금리 인상 등 속도 조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금리 인상을 한 후 상승 속도를 늦출 때라는 것이 적절하지만, 멈출 때는 아니다”라며 “이달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베이비스텝’을 기정사

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새해 첫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98.6%로, 0.50%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1.4%로 나타났다.

연준 인사들은 지난 21일부터 통화 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숨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PCE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중 하나로 연준이 해당 지수에 주목할 것이라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하며 안정세를 펼 것으로 내다봤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는 베이비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증시 하방경직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ASML·버라이즌(24일), 테슬라·IBM·AT&T·보잉(25일), 인텔·비자(26일), 메타(2월 1일), 애플(2월 2일), 아마존(2월 2일), 알파벳(2월 7일) 등의 순이다. 빅테크들의 실적은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파급을 준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보다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며 “실적 발표를 통해 향후 업황을 가늠해 보고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도 짚고 넘어간 후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기대감 커진 리오프닝株… 관건은 선별적 투자

中 경제활동 재개에 항공주 등 급등
“기대감 이미 반영… 변동성 주의해야”

새해 들어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국내 증시가 설 연휴 이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리오프닝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여행·항공·화장품주 등은 올 들어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여행주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지난 2일 대비 각각 9.07%, 31.38% 상승한 6만4900원, 2만1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노랑풍선도 지난 2일에 비해 30.02% 오르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항공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국내 대표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7.93%, 14.34% 상승했

다. 이외에도 에어부산(47.31%), 티웨이항공(29.30%), 제주항공(13.95%), 진에어(13.13%)도 크게 올랐다.

이밖에도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지난 2일에 비해 각각 10.00%, 4.72% 상승했다.

이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 폐지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춘절 연휴에 들어간 것이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주가 변동을 매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형성된 1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코스피에 비해 화장품, 호텔·레저 업종은 20% 전후로 급등했다”며 “기대감 자체는 1차적으로 반영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글로벌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종합지수 대비 해당 업종의 주가는 코로나 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

문에 아직 주가 회복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업종 간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제부터는 경제와 산업의 미치는 펀더멘털 변화를 점검하며 주가의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을 통과했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2차 대유행이 마무리된다면 춘절 이후 3월 양회까지 이연소비 회복이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상반기 리오프닝 최대 수혜업종으로 화장품·유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게임, 바이오·헬스케어, 철강, 화학업종을 꼽았다.

이어 전종규 연구원은 “다만 자동차·2차전지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의 부상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각지로 이동할 수 있고 동서울터미널이 가깝다.

한창종합건설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반양리 일대에 ‘서산해미이아 에듀타운’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5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2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는 29번, 45번 국도가 가깝고, 반경 2km 이내에 있는 해미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에 해미초·중학교, 서산고등학교와 해미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김대환 기자 kdh@

서학개미, 테슬라 기대감 여전 기술주·채권 ETF 집중 매집

해외주식 Click

금리 상승기 막바지 인식 번져

테슬라, 올해에만 31.76% 올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주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상승기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도 사모으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 16~2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SLA)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5561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테슬라는 올 들어 지난해 급락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첫 거래일 종가 108.1달러에서 23일(현지시간)까지 143.75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에만 31.76%가 올랐다.

여기에 해외 증시 전문가들도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 커브 애널리스트 중 64%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확대’를 분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4년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테슬라 외에도 빅테크 관련 성장주 개별 종목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를 3385만달러를 사모으면서 4위에 등극했다. 뒤이어 애플 3067만달러, 대만 반도체업체 TSMC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2798만달러 순매수하면서 각각 5위와 7위에 올랐다.

다만 개별종목을 매집하는 동시에 인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명	순매수액
테슬라	5,561만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	4,151만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	3,910만
엔비디아	3,385만
애플	3,067만

기간 : 1월 16~22일, 단위 : 달러 /예탁결제원

버스 ETF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최근 급등세에 대해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순매수 2위와 3위에 ICE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와, 나스닥100 지수의 일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가 올랐다. 지난주에만 각각 4151만달러, 391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또한 서학개미들의 채권 ETF 사랑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해소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 ETF인 ‘EMLC’가 6위(3048만달러), 미국내 BB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HYG’가 8위(2182만달러), 달러화 표시 신흥국 채권 ETF인 ‘EMB’가 9위(1483만달러)에 올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선진국과 신흥국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기초지수 ‘MSCI ACWI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ACWI(ACWI)를 총 1448만달러 순매수하면서 10위를 차지했다.

/이영석 기자 ysl@

서울 구의동, 서산 해미면 16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160가구(일반분양 155가구)가 분양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에페르넬비온드(오피스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해미이아에듀타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주에 이어 새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디케이와이종합건설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 ‘구의역에페르넬비온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9층, 1개 동, 전용면적 23~47㎡, 오피스텔 총 80실 중 75실이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한 정거장 거리의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강변북로, 잠실대교,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
은퇴와 노후를 고민하는 당신!
.....<

은퇴플래너와 함께 시작하세요!

강창훈 대표

아주대학 불문과 졸업 (1986~1993)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수료 (1994~1997)

Mobile : 010-5305-2083
E-mail : jeipceo@hanmail.net



은퇴플래너 강창훈과 함께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중앙이아이피 강창훈 대표는 은퇴와 퇴직관련, 시니어 일자리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회사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강북구청, 광진구청, 용산구청 등 서울의 19개 구청 특강과 충남인재개발원, 경남인재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은행, 한전, KT, 시니어클럽, 새마을운동지회, 50플러스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20년 이상을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여성비전센터, 광명평생교육원, 연천통일평생교육원, 동두천평생교육원, 양평평생교육원,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원에서 지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명쾌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의 분야

- 퇴직 후 정부지원제도 활용하기
- 퇴직 후 재취업 시장의 이해
- 창업 시장의 이해
- 시니어 구직시장의 이해 및 구직 전략
- 퇴직후 여가활동과 관계의 필요성
- 사회공헌의 필요성과 준비전략
- 중장년 핸드폰과 친해지기

주요 경력

- 현) 중앙이아이피(주) 대표 1999 ~ 현재
- 현) 시니어가이드 협동조합 사무총장 2021 ~ 현재
- 현)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고용연구원장 2018~ 현재
- 현) 다가치포럼사회적 협동조합 고문 2018~ 현재
- 전)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외래강사 2019~2020
- 전)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무총장 2012 2016
- 전)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위원 3년
- 전) 유)청운사회복지진흥원 대표 2014~2015
- 전) 코레일 인사노무분과 자문위원 4년 2014 ~ 2017
- 전) 청강문화대학교 산학협력전문위원 6년
- 전)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 자문위원 2008 ~ 2014
- 전) 고령사회 인력정책포럼 위원 2012 고용노동부주관
-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2015~2016
- 전) 은퇴경제연구소 대표 2011~2012
- 전) 소상공인진흥원 비즈코치 2011
- 전) (주)중앙에셋 대표 2006~2011
- 전) 삼일회계법인 연구원 94 ~ 99

농식품부, ‘수입콩 공매제도’ 고수… 中企 “득없고 역효과”

中企, 정황근 장관에 제도 폐지 건의
직배 공급보다 가격높고 中企 불리
3~4월 업계 의견 수렴후 결정할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콩 공매제도를 올해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소 두부가공업체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입콩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공매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도입한수입콩 공매제도가 최고가 입찰 방식이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매로 인해 업체들이 수입콩을 비싼 가격에 낙찰받다보니 두부 등 완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밥상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만8000톤(t)에 달했던 수입콩 공매물량은 올해 8000t 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제도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2019년 도입한 수입콩 공매제도는 첫 해엔 물량이 3433t이었던 것이 2020년엔 4000t, 2021년엔 8200t 등으로 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정황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해까지 제도가 유지되면 5년째다.

정부가 수입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수입콩은 공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직접 배분(직배) 또는 판매(공매)하거나, 수입권을 배분(FTA 수입권배분)·판매(수입권공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단체나 개별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6만7168t이었던수입콩저울관세할당(TRQ) 물량은 지난해엔 19만6821t까지 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콩 수요가 증가해 TRQ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TRQ란 허용 일정 물량은 저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

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농산물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그런데 aT가 국영무역으로 들여와 단체나 수요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직배 물량은 2017년 당시 16만3668t에서 지난해엔 13만7181t으로 줄었다. 공매제도가 그 틈을 메우면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매제도를 TRQ 물량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배 물량은 거꾸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원재료 값은 상승해 결과적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수입콩을 이용해 두부 등을 제

조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 당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부터 수입콩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직배를 통해)실수요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콩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통해 공급받으면 직배로 받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로 원가 산정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부족해 납품·판매가격에 공매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매제도가 계속 유지돼 이를 통해 수입콩을 낙찰받은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도산 등 경영난에 직

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50년 가량 별 탈없이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누구도 득이 되질 않는 공매제도를 갑자기 도입해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새로운 수요자가 생기면 기존의 직배 형태로 수입콩을 공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고 밥상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공매제도를 완전히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입콩에 대한 공매 제도 유지 여부와 물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두, 참깨 등 다른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매를 통해 공급하고 있고 시장 논리 등을 들어 공매를 통한 수입콩 공급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3~4월 정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수입콩 공매제도가 당초 시행한 의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비트코인 이달 37% 상승… 반감기·난이도 ↑ “금리 인하,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되길”

1만6500달러→2만2700달러 급등
전문가들, 인플레이션 둔화 등 원인 꼽아

비트코인 가격이 새해 들어 35%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상승 원인에 대해 3가지를 꼽으면서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2700달러대로 2만3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 초 1만6500달러 대비 37.5% 상승하면서 연초부터 상승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CPI결과(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가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반응했고,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치 때문이다.

지난 12월 1만7000달러를 시작으로 13일 1만8000달러, 15일 2만달러, 17일 2만1000달러, 21일 2만2000달러까지 회복했다. 지난 22일 장중 한때 2만3000달러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비트코인 50일 이동평균선은 물론,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인한 하락폭도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시장 상승밸리 원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 ▲채굴 난이도상향 ▲2024년 반감기 도래 등을 꼽고 있다.



나스닥 등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달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1450원 근처까지 치솟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원화 가치 상승)해 최근 1200원대로 내려왔다.

연준이 12월 금리를 기준 빅스텝(한번에 0.5%p 인상)에서 베이비스텝(한번에 0.25%p 인상)으로 낮추면서 달러도 안정세를 찾은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부분이 달러와 연동해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암호화폐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도 비트코인 상승밸리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16일 BTC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0.26% 상승했다. 채굴 난이도가 10% 이상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년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블록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게 되는데 반감기가 내년 3~5월 사이에 일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공급이 쪼그라들면서 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생성된 이후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총 세 차례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매번 폭등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

기업인들이 기원하는 희망뉴스 설문

우리 기업인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뉴스로 ‘금리 전격인하(‘경제대응’ 부문)’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미래준비’ 부문)’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새해를 맞이해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가상뉴스)”를 조사했다.

먼저 ‘경제대응’ 부문에서는 ▲금리 전격인하 ▲코로나 종식 선언 ▲유가·원자재가 안정이 꼽혔다. ‘미래준비’ 부문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저출산 정책효과 ▲2030 엑스포 유치의 순으로 응답됐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1위는 ‘금리 전격인하(51.2%)’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 세계적 높은 물가 상승과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 한 해동안 총 7차례 인상됐다. 지난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연 3.50%로 0.25%p 올려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이어진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침체, 투자위축, 기업·가계부채 불안 등 실물경제의 곳곳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정책도 열어두

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는 ‘코로나19 종식선언(42.9%)’이 선정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로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3위는 ‘국제유가·원자재가 안정(39.1%)’이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안정은 공급망 자체가 정상화돼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추가적인 유가·원자재가 안정은 물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이 꼽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로 ‘중국 등 소비재 수출시장 회복(19.0%)’, ‘반도체+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배터리)·방산·원자력) 등 주력산업 수출 호조(16.8%)’, ‘K-콘텐츠 문화산업 수출 확대(16.0%)’, ‘美 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무역 리스크 해소(15.0%)’ 등이 차례로 응답됐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로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46.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35.5%)’가 새해 기업인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미래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에 올랐다.

/최빛나 기자 vitna@

예비 고3부터 자소서 전면 폐지… 수능 응시생 역대 최저

2024학년도 대입 포인트

내신성적·세부능력 등 영향력 확대
성적·발표·프로젝트 등 역량 중요

고3 수능 응시생 28.4만여명 추정
재수생 5천~8천명 감소 예상돼
논술전형 실시 36곳→38곳 확대

2023학년도 대입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 대입 레이스는 벌써 시작됐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과 동시에 대입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면서 철저한 학습 관리·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자소서 전면 폐지…내신·세특 중요성 커져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평가되는 만큼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활동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서류에 대한 부담은 줄었으나,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예비 고3 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진행되는 발표, 토론,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는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전공별 연계 교과이수 과목이란 각 모집단위별로 고교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과목 선택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다만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 분위기의 변화도 예상된

다. 현재는 자소서 폐지로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될 경우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절대평가 도입 시 내신의 변별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대학, 중하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신 부담이 크게 완화돼 수시에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방 대학들의 충원이 수월할지는 미지수라고 첨언하면서 대학간 양극화를 우려했다.

◆2024학년도 ‘최대 미달’ 맞об기해…학령인구 역대급 저조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2024학년도에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최저 수능 응시생이 예상될 정도로 수험생이 적은 해다. 수능 응시생 기준 집계 시작된 2005학년도 이후 고3 수능 응시생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21학년도로 29만5116명이었고, 최고는 2011학년도로 51만893명이었다. 2024학년도에는 그 기록을 깨고 28만4000명대로 추정됐다.

올해 고3 학생 수를 살펴봤을때, 지방에서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한 규모다.

또한, 올해 수능 흐름상 재수생도 지난해 13만9385명보다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졸업생 수가 줄면서 재수 규모 대상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2023학년도 정시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시에 최종 탈락하는 규모도 감소하는 연쇄 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수생 비율 자체는 높을 예정이다.

임 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 대응 필요 상황”이라며 “합격점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논술 전형 소폭 확대…대학별 전형 변화 다양해

2024학년도에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6개에서 38개로 소폭 증가한다. 기존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논술전형을 신설 학교들이 생기면서 모집규모 자체는 유지됐다. ▲한양대(ERICA) ▲울산대(의예)가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전형을 신설, 서경대가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던 논술을 논술전형으로 변경한다.

임 이사는 “통합 수능 등 수능 점수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의 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논술 고사보다는 수능에 올인하는 쪽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이런 기조에서는 수험생들도 내신과 수능, 아예 양극단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올해 정시에서 교과성적을 도입한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했다. 서울대는 정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Ⅱ(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의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했으며, 한양대도 과학탐구Ⅱ 변환표준점수 3% 가산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해당 조항을 신설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연계 ‘취업’, 인문계 ‘대학 브랜드’ 선호

주요 11개 大 경쟁률 상위 3개학과 자연계열 선호도 1위 ‘컴퓨터 학과’ 인문계열 ‘외국어 관련 학과’ 꼽아

최근 3년간 주요대 정시에서 자연계열은 컴퓨터,반도체, 인문계열은 외국어 관련학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는 취업 중심 선호가 높은 반면, 인문계는 대학 브랜드에 따라 선호가 갈렸다는 분석이다.

24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서연고 등 주요 11개 대학의 경쟁률 상위 3개 학과 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자연계열에서는 컴퓨터 관련 학과,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 정시 기준 선호학과 1위에 꼽혔다.

자연계열은 ▲2021학년도에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식품 등 관련 학과 ▲

2022학년도에 인공지능(AI), 생명 관련, 컴퓨터 관련 학과 ▲2023학년도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 인공지능(AI)가 우세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선호학과 추이는 취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학과 특성이 고려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대체로 자연계열에서는 해당 대학내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수능 점수 기준으로 상위권 학과로 특정할 수 있다”며 “최근 취업에서 유리하고, 정부정책, 대기업과 연계된 학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외국어 관련 학과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외국어 다음으로 사회과학, 경영이 2위, 3

위권이다. 인문계열 중 외국어 관련 학과가 대학 내에서 높은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있다. 종로학원은 최근 3년 연속 외국어 관련 학과가 각 대학 내 경쟁률 최상위권 학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문계열은 전반적으로 대학 브랜드를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임 이사는 “자연계열은 의학계열 선호에 따른 집중도로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되고, 연세적으로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도 취업 등의 인기학과 쪽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반면, 인문계열은 통합수능에서 이과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수,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등과 맞물려 특정학과 집중보다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원광디지털대, 신·편입생 2차모집 진행

내달 15일까지 3개학부 17개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일반전형뿐 아니라 산업체전형, 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등도 모집하며, 3학년 학사편입학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모집학과는 3개 학부 17개 학과로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지과학학과, 차(茶)

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다.

장학 대상을 연령, 직업, 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없앤 원광디지털대에서는 이미 재학생 58%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2022학년도 1학기 기준). 2021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장학금은 등록금의 69%인 195만원이다. 국가장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왕탁·장일주, 우수논문상 수상

중국 중심 문화상품디자인 등 분석

세종대학교는 왕탁(WANG TUO) 경제학과박사과정생과 장일주(ZHANG YIZHOU) 객원교수가 지난달 10일 한국문화산업학회에서 2022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논문 제목은 ‘Research on the Design and Influence of Cultural Product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이다. 수상 논문은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상품디자인과 창조경제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화상품디자인의 경제수익과 문화상품의 홍보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왕탁 박사과정생(왼쪽)과 장일주 객원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왕 박사와장생과 장 객원교수는 Cobb-Douglas 생산함수 모델을 통해 문화상품디자인과 경제발전에 대한 관계를 탐구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 서포터즈 수료식

진로취업지원센터 등 적극 홍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최근 ‘제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서포터즈’의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서포터즈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월별 미션을 수행하며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사업과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서포터즈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학생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창설한 서포터즈 1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학생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활동 보고, 우수 학생 시상, 수료증명

서 수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 서 우수 학생으로 서포터즈 학생대표이주연(영어교육·21)을 비롯해 심예지(ELIT·21), 엄성희(중국언어문화·21), 이유진(차이나데이터튜레이션전공·21)학생이 선정돼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

한편, 한국외대는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강화된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신하은 기자

WATSON

THE MAESTRO

알버트 왓슨 사진전
2022.12.8-2023.3.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주최 한겨레

예술의전당



주관 한겨레

후원



협력



Munch

몽크소통타운

대구시, 숨겨진 명소 발굴 등 ‘열린 도시 브랜딩’ 집중

스토리텔링 북, ‘도달쭈’ 활용 등
주요 도시 돌며 콘텐츠 전시·공유
핵심 정보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대구시는 대구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브랜드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 전시, 숨은 명소 발굴, 스토리텔링 북 제작, 도달쭈를 통한 시민 소통 등 대외적으로 ‘열린 도시 브랜딩’에 집중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전달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현장형 도시브랜드 존과 3차례 SNS 시민참여 공모전, 포털 사이트(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도시철도 이용 광고 등에 주력했다.

특히 한 달간 동대구역 광장의 ‘반갑다 대구! 파워풀 대구 전시관’은 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시민 이해와 다양한 도시브랜드 콘텐츠를 소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구시청.

대구시는 올해 ‘대구가 다시 힘차게 우뚝 솟아오른다’는 의미의 대구굴기 원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도시 인프라를 알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시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을 도시브랜드 마케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구시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권역별 주요 도시 6곳과 동대구역, 엑스코 등을 돌며 대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서 전시 및 공유한다. 이는 타 시도와 관문지역, 홍보관, 박람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정하여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창의적인 전시물과 포토존을 구성해 다양한 도시브랜드 콘텐츠(5대 신산업, 활력의 도시, 역사와 정신, 명소 등)를 입혀 대구의 활기찬 도

시 이미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대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무형 브랜드 자원인 역사, 정신, 산업, 환경, 명소, 음식 등에 대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30선과 대구의 핵심 정보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20선을 리뉴얼하여 책자로 제작하고, SNS 채널로 알리는 등 대내외에 대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도시 달구벌 수달’을 뜻하는 도달쭈 캐릭터의 2D, 3D를 다양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 공유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캐릭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숨겨진 명소와 도심의 폐·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공간, 플리마켓 등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위한 활력 넘치는 공간을 발굴해 도시 활력과 매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 알릴 서포터즈 찾습니다”

경상북도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북 정책, 명소 등을 알리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70명으로 월 1회 경북 취재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반분야 50명, 영상분야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SNS 서포터즈는 경북 각 분야별 현장취재를 통한 블로그 기사 작성으로 도정 온라인 홍보활동을 맡게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하며, 도 주최 간담회 초청, 팸투어,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분기 및 연간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우수 활동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여수시 ‘울촌 소뎡이항’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 추진

여수시는 ‘울촌 소뎡이항’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울촌 소뎡이항 지구에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비 35억 원을 포함한 50억여 원이 투입된다. 시는 울촌 소뎡이항의 안전한 조업활동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파제 조성, 부잔교 설치, 소뎡이(솔뚜껑) 쉼터 정비 등 어항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울촌 소뎡이항 지구는 ‘더 안전한 어항·더 행복한 어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iaacecom@

‘경남도민의 날 찾기’ 아이디어 공모 나선다

경상남도도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경상남도 도민의 날’ 찾기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경상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 진행한다. 도민의 날은 경남의 역사, 문화와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 도민의 공감대가 높고 기억하기 쉬운 날, 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찾는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부산시 ‘함부르크 개항축제’ 주민도시 선정

방문객에 문화·기업 홍보 기회

부산시가 오는 5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항구축제인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주민도시로 공식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함부르크 주정부 경제혁신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함부르크 개항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 올해 행사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각종 선박 페어리드, 불꽃놀이, 페리글라이딩 등 200개 이상의 행사가 도시 전역에서 동시 개최된다. 특히, 1개 국가 또는 도시를 주민으로 선정해 방문객에게 주민 국가(도시)의 문화와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이 축제는 전 세계 214개의 TV방송, 487개의 라디오 방송, 1500개 이상의 지면 방송 매체, 2079개의 인터넷 매체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주민도시 선정은 지난해 11월 함부르크 주정부에서 부산시를 주민도시로 공식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시는 주민도시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개항축제 기간 개최국인 독일을 포함, 유럽 전역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영덕군, ‘강구항’ 新 경제거점 만든다

공모사업 선정… 300억 확보

영덕군 강구항 일대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선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사업비 300억원 이내) 대상지로 강원 고성군, 충남 보령시,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

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영덕군은 작년 11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 및 타당성, 법적 검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면평가(서류 및 발표)를 통과했으며, 지난 1월 5일 현장 방문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영덕군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환동해권 수산경제 1번지, 강구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구항 일대를 수산식품 기반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전남도, 개조전기차 안전성 실증 준비

‘1.3조 친환경 시장’ 공략

작년 3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2년간 155억 투입… 실증 기반 구축

전남도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개조전기차 시장 공략과 관련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착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3개 지역이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영암군은 ‘제작·실증’, 목포시·해남군은 ‘주행실증’ 특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2년간 국비 90억원, 지방비 39억원, 민자 26억원 등 총 155억원을 투입해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되면 전남지역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2개 기업·기관이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원과 기업들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해 중량이 변화

한 데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뒤 협약을 하고 실증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총 27대의 개조전기차를 제작할 예정이다.

주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법을 개발하고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행시험 평가 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안전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택배화물차량·운전면허 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만 7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 수출 중고차,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6150억원 등 총 1조3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연간 1500억원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신경주역’, ‘경주역’으로 역명 변경

경주시, 개통 13년 만에 마무리

경부고속선의 기착역이자 천년고도 경주의 관문인 ‘신경주역’을 ‘경주역’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010년 11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신경주역’이라는 역명으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경주

역’을 ‘경주역’으로 역명을 변경·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은 역명 확정 당시 중앙선·동해남부선 ‘경주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新)경주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선·동해남부선 이설로 기존 ‘경주역’이 폐역이 됨에 따라 ‘신경주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분별이 사라지게 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창업지원센터 ‘스테이션H’ 건립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스테이션H(솔라시도 스마트컬리지)를 건립한다.

스테이션H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4차 산업 및 미래 산업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기업도시내 연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임시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60억원을 투입, 오는 2024년도까지 연면적 1,928㎡의 2층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볼거리부터 완구·화장품까지… 유통가, 포스트 설 마케팅

롯데마트 완구 1900품목 최대 50%
홈플러스 내달 1일까지 ‘완구대전’
롯데백 본점서 입생로랑 뷰티 팝업
현대백 목동점서 래빗 유토피아전

설 연휴가 마무리 되면서 유통업체가 ‘포스트 설 명절’ 마케팅에 나선다. 가족과 나들이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볼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 행사, 오는 30일 있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화장품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한 뷰티 프로모션까지 마련했다.

24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설 연휴 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팝업스토어, 프로모션 등을 이어간다.

롯데마트는 1일까지 완구 특화 매장 ‘토이저러스’의 1900여 품목 완구를 최대 5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매년 설과 추석 시기에



유통업체가 설 연휴 이후 마케팅에 들어간다. 가족 나들이 고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완구 행사는 물론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뷰티 관련 프로모션도 가득하다. /홈플러스

맞춰 2회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5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명절이 위치한 2월과 9월 가장 높은 장난감 판매량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 당일 이후 일주일 간 완구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까지 완구 상품들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설날 완구대전’을 진행한다. 특가기획 완구들을 한정수량으로 마련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레고 인기 상품을 행사카드 결제시 40% 할인 판매하며 아바타, 닌자고, 시티, 프렌즈 등의 신제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NEW 벨벳 틴트’ 론칭을 기념해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

광장에서 메가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메이크업쇼, 인그레이빙 서비스부터 포토부스, 게임 이벤트 등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전시와 유아동 대상 행사를 마련했다. 목동점은 다음달 11일까지 7층 글라스하우스에서 김우진 작가의 ‘래빗 유토피아전’ 전시를 연다. 더현대 서울은 다음달 4일부터 6층 알트원(ALT.1)에서 다음달 4일부터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다비드 자맹: 프랑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비드 자맹의 신작 100점을 포함해 그림 150여 점을 선보인다.

관교점에서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9층 문화센터 앞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겨울방학에 배우는 독서와 인쇄 문화의 가치’라는 주제로 실제 책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활판을 비롯해 1950년대 교과서까지 다양한 독서·인쇄 관련 전시품들을 선보인다. 5

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키즈 편집샵 ‘뽀띠파뽀띠’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미국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포터리반 키즈’의 팝업 행사를 진행해 책가방·필통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5층 에스컬레이터 옆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아동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캐치티니핑’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발레복을 비롯한 의류·잡화 상품들을 선보인다.

갤러리아 광고에서는 토끼해를 맞아 네덜란드 유명 토끼 캐릭터 ‘미피(miffy)’ 전시를 진행한다. 각 층마다 미피 전시와 함께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더불어 유아동 브랜드 구매고객(20만원 이상)에게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2매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증정한다.

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네스프레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스프레소 버쥬오 머신 패키지 세트 구매 시 최대 13만원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미래식품·바이오 전문가 육성

고려대와 인재육성 산학협력 MOU
선정 학생에 공동연구 기회 등 제공

CJ제일제당이 고려대학교와 맞춤형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MOU)을 체결, 미래 식품·바이오 분야 전문가 육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은 식품·바이오 분야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CJ제일제당은 선정된 학생들에게 공동 연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CJ제일제당 경영진 및 각 분야 산업 전문가의 교과 연계 비즈니스 특강, 각종 기술 세미나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3, 4학년 학부생들에게 정기적인 산업 현장 실습 및 산업체 연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고려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의 사업소개 및 직업 선택과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오른쪽)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맞춤형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취업을 주제로 바이오 인사담당 임원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학생들이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경험을 쌓고 직업을 탐색하며 미래를 그려 나가는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CJ제일제당은 글로벌 라이프 스타

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고인재 양성’과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식품·바이오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고려대뿐 아니라 연세대, 서울대, POSTECH(진행순)과 함께 산학 장학학생 특화 협약을 맺어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50명 이상이 R&D, 생산기술, 제조 직무로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2020년부터 한양대, 인하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과 연계된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채용, 산학공동연구 등에 있어 더욱 굳건한 산학협력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양 기관이 가진 최상의 동력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트레이더스, 끼니 책임지는 ‘푸드 페스티벌’

농수축산부터 간식류·반찬류까지
내일부터 한달간 역대급 식품행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가 한달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행사를 진행해 고객들의 끼니를 책임진다. 트레이더스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신선, 가공식품 분야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농수축산부터 간식류, 안주류, 반찬류까지 고객의 끼니를 책임질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1주일 단위로 인기 신선·가공식품 10개 품목을 선정,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한다. 트레이더스 매장 입

구 및 트레이더스 클럽 센터(고객 만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쿠폰북을 통해 행사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제 시 신세계(이마트) 포인트를 적립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상품 품질 발생 시 고객들은 행사 종료 이후 1개월간 쿠폰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선식품은 제외다.

먼저, 1차 기간(1월26일~2월5일) 동안 ‘호주산 냉장 곡물 윗등심살(백)’ 6000원, ‘이판란(60구)’ 2500원, ‘딸기 1kg(박스)’ 2000원, ‘오푸기 옛날 구수한 누룽지(60g×18입)’ 3500원, ‘고래사프 리미엄 어묵바’ 2500원 등 10가지 상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씨앤에스플라워
근거리 꽃배달 활성화 맞손

GS리테일이 씨앤에스플라워(송도꽃도매)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리 꽃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근거리 꽃배달서비스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동네 꽃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온라인 꽃배달서비스 활성화 ▲친환경 배달 활성화 통한 ESG 경영 실천 ▲유통 및 화훼 업계 시너지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GS리테일은 꽃이 주로 쿼터비로 배송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끼는 배달비 부담을 줄여 꽃배달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현대리바트, 포켓몬 디자인 적용
‘폼즈 길이조절 키즈침대’ 출시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리바트가 ‘폼즈 포켓몬 에디션 길이조절 키즈침대(사진)’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침대는 포켓몬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출시한 ‘리바트 포켓몬 에디션’ 6종 중 하나다.

기존 자사 인가 제품인 ‘폼즈 길이조절 키즈침대’에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폼즈 길이조절 키즈침대는 자라는 아이의 신장에 맞춰 120cm, 160cm, 200cm 총 세 단계로 침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만 3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하다.

안전성 강화에도 힘써 모든 모서리를 라운딩 가공기법을 적용해 둥글게 제작하고, 침대 가드를 넓게 설계해 안전사



/현대백화점그룹

고 예방 효과도 높다.

폼즈 포켓몬 에디션 길이조절 키즈침대에 적용된 자재는 모두 ‘E0 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비롯해 각종 안전검증을 거친 마감재를 적용했다.

한편, 현대리바트가 판매중인 ‘리바트 포켓몬 에디션’은 폼즈 길이조절 키즈침대를 포함해 ▲이동 행거 ▲1200슬라이딩장 ▲1200아이책상 ▲뚜뚜의 자 ▲집속작은집 침실세트 등이다.

/김서현 기자

CU, 현수막 재활용·제작 미니백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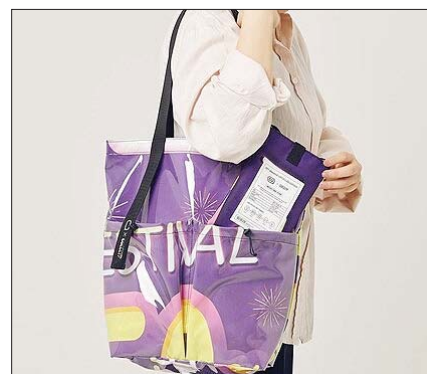
도시 숲 가꾸기 캠페인에 수익금 지원

CU가 27일 대규모 할인행사에 사용한 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재활용 미니백(사진)을 판매한다.

CU는 그동안 설·추석·밸런타인데이 등 대규모 행사 때마다 홍보를 위해 매장에 현수막을 건 후 행사 후에 폐기처리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논란을 불렀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클리프’와 손잡고 현수막 재활용에 나선다.

첫 제작 아이템인 재활용 미니백은 오는 27일부터 포켓CU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도시 숲 가꾸기 캠페인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CU는 현수막 제작에도 친환경 소재



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페페트 병에서 뽑은 재활용 섬유인 리젠 원단을 활용한다. 리젠 원단은 1미터당 페트 병 10개를 재활용해 만드는 만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김서현 기자

“건강한데 맛있기까지”… 튀기지 않은 ‘건면’ 판 커진다

건강한 食생활

〈上〉 라면시장

즐겁게 건강을 지키려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식품기업들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을 너나 할 것없이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다. 지방과 칼로리, 당 함유량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본연의 맛은 살려 먹는 즐거움을 부여하는 것이다. 헬시플레저 열풍에 따라 변화한 식품 소비 현황을 상·중·하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라면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름에 튀지 않고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든 건면 제품 가짓수를 늘리고 관련 제품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추세다. 건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아 유당면보다 담백하고 열량이 30% 가량 낮다는 특징이 있다. ‘라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편견을 일부 해소한 셈이다. 농심은 지난해 건면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당면보다 열량 30% 가량 낮아 농심, 작년 건면 제품 매출 1000억 삼양식품, 저온건조 방식 ‘차별화’

농심의 건면 대표제품인 ‘신라면 건면’은 신라면의 맛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층 가볍고 깔끔한 맛을 담아 2019년 출시한 제품으로 열량은 350kcal다. 기존 신라면(500kcal)보다 30% 낮다.

건면 열풍을 타고 지난해 8월 내놓은 신제품 ‘라면왕김통깨’도 2달여 만에 100억원 매출을 돌파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농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존 라면보다 열량이 낮으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면을 찾고 있다”며 “올해 건면 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도 건면 라인업을 꾸준히 늘려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진한 짜장 소스에 마늘 풍미를 더한 ‘로스팅 짜장면 갈릭오일’을 출시했다.

풀무원의 ‘로스팅 짜장면’ 라인업은 지난해 3월 출시 6개월만에 누적 판매 1000만개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건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신장했다.



신라면 건면

/농심

풀무원의 건면 제품으로는 ‘로스팅 짜장면 파기름’, ‘로스팅 짬뽕 흥게’, ‘로스팅 매운 돈코츠라면’, ‘로스팅 자연건면 정·백·홍면’ 등이 있다.

삼양식품도 건면 브랜드 ‘쿠티크’를 론칭하며 헬시플레저 열풍에 동참했다. 쿠티크 브랜드 면은 스팀으로 썬서 고온으로 말리는 다른 건면과 달리 물에 삶아 장시간 저온으로 건조한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쿠티크는 최근 첫번째 제품으로 ‘쿠티크 에센셜짜장’을 선보였다. 삼양식품 측은 물에 삶아 건조시키는 새로운 건면 제조방식을 통해 프리미엄 건면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뚜기의 경우 당면으로 만든 ‘컵누

들’ 제품 외에는 건면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 않다. 아직 건면 시장이 초기 단계인만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고 건면 제품을 위한 생산 라인을 따로 조성해야 해 투자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뚜기는 건면 대신 비건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채식라면 ‘채황’을 개선해 자사 비건 브랜드 ‘헬로베지’ 라인업에 편입시킨 것. 헬로베지는 오뚜기가 지난해 5월 론칭한 비건 전문 브랜드로, 오뚜기는 헬로베지 라인업을 확대해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건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건



쿠티크 에센셜짜장

/삼양식품

면 시장은 지난해 기준 1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조5000억원 규모인 전체 라면 시장과 비교하면 6% 정도의 비중에만 그치지만, 그럼에도 업계가 건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진만큼 ‘건강한 먹거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당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설 연휴, 제주 보다 해외로… 日 관심 급증

‘일본여행’ 키워드 402.41% 폭증
국제 유가, 환율 안정세 ‘큰 역할’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화) 후 첫 설 명절, 지난 3년 간 각광 받았던 ‘제주여행’은 지고 ‘일본여행’이 떠올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일평균 공항 이용자수는 12만3215명으로 지난해 8859명과 비교해 1290% 증가했으며, 2019년 20만585명과 비교하면 61.4%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24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여객 수가 37만3294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 수가 총 29만5432명으로 가장 많고, 김포공항 등 나머지 14개 공항의 국제선 탑승객 수는

7만7862명이다.

이번 설 해외여행에 관한 관심도는 여행업체와 빅데이터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와 지난해 설 연휴 직전 3주 간 SNS 및 기업, 정부 관련 12개 채널의 여행 관련 언급량을 분석한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해외여행’ 키워드를 포함한 포스팅 수는 102.78% 늘어난 반면 ‘제주여행’ 키워드는 8.21% 줄었다. 특히 목적지를 정한 해외여행 언급 포스팅에서는 ‘일본여행’ 키워드가 402.41% 폭증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키워드를 포함한 ‘동남아여행’이 315.22%, ‘유럽여행’이 10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가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이용률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은 전년 연휴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했다. 여행 기간은 해외 패키지 여행을 기준으로 3박4일 예약자가 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휴 기간을 활용한 해외 여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안정세로 접어든 국제 유가와 환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제 유가는 배럴 당 최대 95달러, 최저 84달러를 기록했는데, 원 달러 환율까지 평균 1300원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반면 약 5개월 여 지난 24일 현재 국제유가와 원 달러 환율 모두 안정세로 들어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3.88달러, 원 달러 환율 1230원을 기록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샘표 “집에서 지역명물 두부요리 즐겨요”

대전·강릉식 두부요리 양념 출시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지역 명물 두부요리를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사진)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2종 출시로 샘표는 기존 안동찜닭 양념, 춘천닭갈비 양념, 부산자갈치 고등어조림 양념 등 모두 9종의 조림볶음양념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샘표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과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두부와 1~2가지 재료로 입맛 돋우는 일품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두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념만 있으면 전문점 못지않은 두부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식 두부두루치기 양념’은 대전 맛집 골목의 화끈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매콤 칼칼한 양념장에 자작하게 끓여낸 두부는 밥반찬은 물론 든든한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남은 양념에 깻잎과 우동사리를 더하면 또 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다.

‘강릉식 두부조림 양념’은 강릉 두부 마을에서 맛보던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두부조림 양념을 한 팩에 담은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免, 업계 최초 ‘논픽션’ 스토어 오픈

명동본점 11층에 단독 운영

롯데면세점이 유명 브랜드 입점에 공들이며 내외국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논픽션(NONFICTION)’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명동본점 11층에 단독 오픈했다. 오프라인 면세채널에 논픽션이 입점한 것은 롯데면세점이 처음이다.

2019년 서울에서 처음 론칭한 디자

이너 브랜드 논픽션은 건강한 원료와 아름다운 내러티브가 담긴 시그니처 향을 중심으로 향수와 바디케어 제품군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젤틀나잇 오드퍼퓸, 샴탈크림 핸드크림 등이 논픽션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힌다.

논픽션은 최근 홈프래그런스 컬렉션을 출시해 카테고리를 넓히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총 4곳의 시그니처 스토어를 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논픽션이 문을 열었다.

/롯데면세점

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쿄 이세탄 백화점,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단계별 성장 돕는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

조아제약, 조은아이 시리즈 확대

조아제약이 어린이 비타민제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을 출시했다.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폴린, 이노시톨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해 어린이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준다.

조아제약은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 출시로 우리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은아이’ 시리즈를 완성

했다.

‘조은아이’ 시리즈는 생후 100일(만 3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복용할 수 있는 조은아이 시럽(STEP1)과 아동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함량을 높인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STEP2) 등 두 종류다.

조은아이앰플러스 시럽은 400mL 단위 포장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항은 조아제약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오늘은 장학생 내일은 전문가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하고
특성화교육으로 앞서가자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3.1.20(금) ~ 2023.2.15(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금 수혜율 100%
*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58% 전액장학생
* 2022년 1학기 기준

사이버대학 최다 지역캠퍼스 보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익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이버 위협 대응 긴급점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24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연초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필어비스, MS와 기술협력·글로벌 마케팅 맞손

필어비스가 지난 19일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공동 마케팅을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필어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및 플랫폼 애저(Azure)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ML), 인공지능(AI),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협업할 계획이다.

/필어비스



넷마블, 가상인간 걸그룹 '메이브' 정식 데뷔

넷마블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첫 걸그룹 '메이브(MAVE)'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이브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앨범 'PANDORA'S BOX(판도라스 박스)'를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다.

/넷마블

티빙 오리지널 '괴이' 3D 옥외광고 '앤어워드' 디지털 콘텐츠 그랑프리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의 3D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옥외 광고가 '2022 앤어워드'에서 디지털 콘텐츠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기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디지털마케팅 시상식이다. 현장 전문가, 산업계 대표, 외부 전문위원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된다.

/채윤정 기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교육부 인사교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신양수 ◇과장급 전보 △성광관리운영과장 한상열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고용센터소장 조정숙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김문실

부음

▲윤병순씨 별세, 백창훈(하나증권 홍보팀장)씨 모친상 = 23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하남마루공원. 02-3010-2000
▲김양자 씨 별세, 강병중(넥센그룹 회장) 씨 부인상 = 22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51)305-4000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등록 이야기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람들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물론 저작권법에 따를 때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위와 같은 저작권의 등록을 마쳐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적 권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등록된 내용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저작자가 '갑'인데 '을'이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제한은 있어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저작권 등록은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反證, 반대증거)을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 또한 사실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앞의 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 수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단순히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김준 SK이노 부회장 “미래 세상 움직일 중추되길”

신입사원들과 90분간 소통

회사 생활, 고민 등 이야기 나눠

“지금과 전혀 다를 미래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의 중추가 되어달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진행한 대화시간에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 ‘신입사원과의 대화’ 세션에 등장해 90분간 SK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이 SK이노베이션의 그린(친환경) 미래사업을 이끌어갈 주역인 걸 상징하기 위해 신입사원 명칭을 ‘그린이’로 붙였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신입사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엔부브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8개 자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1987년 유공 시절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뎀 ‘김준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신입사원들은 김 부회장에게 회사생활부터 개인적인 고민, 회사 미래 전략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SK어스온 한 신입사원이 “업무하다보면 토론이 많을 텐데 선배들 앞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김 부회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며 자기주장을 펴는 게 중요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할 말 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다”고 답했다. 또 “신입사원들이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생각을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美·유럽 등서 상 휩쓸어

美 주간지서 7개 부문 이름 올려
글로벌 시장 ‘퍼스트 무버’ 등극

현대자동차그룹이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수상 소식을 전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내연기관과 달리 전동화 시장에서는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고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U.S. 뉴스 &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3 최고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의 고객가치상(Best Cars for the Money Awards)’ 차종별 12개 부문에서 무려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고객가치상은 품질과 상품성뿐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가격, 유지비까지 평가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주어지는 상이다.

U.S. 뉴스&월드리포트는 1948년 창간된 시사 주간지로 분야별 순위가 각종 매체에서 인용되는 등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하이브

리드 승용, 현지명 엘란트라) ▲싼타페(중형 SUV) ▲팔리세이드(대형 SUV) ▲코나(소형 SUV)가, 기아는 ▲K5(중형 승용) ▲리오(소형 승용) ▲스포티지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SUV)가 경쟁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각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기아 텔루라이드, 제네시스 GV70도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주관하는 ‘2023 베스트 10 트럭&SUV(이하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카앤드라이버는 1995년 창간 이래 미국은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동차 전문지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3개 브랜드가 모두 수상하는 동시에 자동차그룹 기준으로도 최다 차종이 선정돼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양성운 기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허와 실



홍경안

시시일각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3개 세부 과제가 실렸다.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예술활동확인제도’로 바뀐다. 다소 딱딱한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예술활동증명’을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했다면 앞으로 5년으로 일원화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서 재신청을 면제하고,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을 도입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개정해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

술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 기관을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개편(2부 8팀)이 진행된다. 미약하나마 열악성을 면치 못했던 복지재단 직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다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둔다. 유형별 세부방안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쟁점 역시 남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 간 구분은 어떻게,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행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생활예술인과 하이아마 주어들들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대 표적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예비·신진 예술인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견 예술인 간 지원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인들의 진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취미나 여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의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인구의 유입은 예술인복지법 입제 취

지와도 어긋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해화동 더부살이 청산 및 직원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 등은 문제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한국 예술인 복지를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고,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행정능률 향상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되면 업무 분담은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필수다.

하나 예술인복지 관련 제도를 제아무리 잘 정비하든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미술평론가

‘연금개혁’, 진정성으로 국민 설득해야



기지수첩

박태훈
(정치경제부)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수업이었던 ‘복지정책론’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90년대 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났다. ‘국민연금은 취업과 동시에 의무 가입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도 그럴것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만기를 채울 시 70%의 소득대체율(근로기간동안의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도입 당시 가입 유

인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후하게 설정한 면도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9%(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득대체율이 제도 도입 당시보다 30%포인트가 떨어지고 기금도 2057년(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고갈된다고 하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간다.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다만, 사용자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큰일 났으니,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이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하라”쯤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주로 기금 소진에 앞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하느냐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 보장 시스템의 공고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 및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안을 통과시킬 구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기엔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개혁’보다 매력적일 것이다. 결국은 정치다. 남은 시간 아래, 정당은 이해관계자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

/pth7285@

오늘의 운세

1월 25일 (음 1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손님으로 환운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48년생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는다. 60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2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84년생 지친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를.



37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49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6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삼각관계를 조심. 7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놓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전진. 85년생 손조롭지는 않아도 진행을.



38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5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62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74년생 첫 손가락에 배가 부르지 않으니 기다리자. 86년생 기대가 크면 투지도 그만큼 발생한다.



39년생 자신밖에 모르던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연다. 51년생 만나는 즐거움을 좋아하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63년생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한다. 75년생 보기에겐 멀쩡하나 속상함. 87년생 하늘의 이치는 누구나에게 공평한데.



40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2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일이 없다. 64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76년생 젊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 88년생 직장일이 바빠도 공부를 향상시켜나간다.



41년생 이사는 가족끼리 모여 지혜를 모으도록. 53년생 미움과 따돌림 하는 마음을 접어야 내가 편해진다. 65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 77년생 일이 손조롭게 잘 풀리나 복병이 있으니 주의. 89년생 즐거워지니 재물도 늘어난다.



42년생 매매문서는 잘 살펴라. 54년생 생활 속의 사랑에는 신비한 마력이 일어난다. 66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78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90년생 조금하다고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43년생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친다. 55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79년생 진로수정은 신중하게 해야. 91년생 운이 열려 운수대통이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44년생 내가 건강해야 집안이 화목해지는 순서이다. 56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 68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순식간. 80년생 언제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92년생 연인을 만나도 일시적인 감정은 자제를 해야 할 듯.



4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 5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9년생 외출 시 이물자를 조심. 81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임방아에 오른다. 93년생 고물가든 언제나 공동한 기회는 오키미런.



4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58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잘 설득하라. 70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 82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자. 94년생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일어설 수 있다.



47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라. 59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나 곧 해소. 71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사람을 잃을 수. 83년생 장래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이 좋겠다. 95년생 미래 성장 동력은 현재 자기 실력을 배양하는 길.

김상회의四季

삼재



한 해가 시작되면 마음은 바빠진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대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부터는 행정나이가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일괄 하향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 나이는 도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는 관습적 나이로서 일종의 시간의 인식에 대한 문화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이를 세지만 음양오행을 따지는 정서에서는 산모의 태중에 입태하여 있는 열 달도 생명의 시원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치게 되는 관습적 문화이다.

만물을 예측하는 차원에서의 사주학은 육십갑자로서 생년월일을 규정한다. 물론 음력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월을 적용할 때는 태양력에 기준을 준 절기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매화역수에서는 절기 반영을 하지 않고 태음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명을 하며 일부 역학자들은 태양력의 절기를 접고 그냥 음력 월을 기준으로 사주감명을 하기도 한다. 왜냐면 태양력은 근대 이후 서구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도입된 역력이기 때문이다. 태양력 이전에는 음력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태양력을 준용하여 발생한 것이 양력 2월 29일인데 4년에 한 번 오는 29일 생일의 문제는 태음력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삼재(三災)란 태음력에서 보듯 사람들이 9년 주기로 맞이하는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를 일컫는 용어이다. 삼재는 태어난 해인 띠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9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3년간 각별히 이런 저런 재난에 노출된다고 본다. 이를 통틀어 삼재팔난이라고 부른다. 삼재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를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라고 칭한다. 계묘년에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 2년차로서 놀삼재가 되니 사건 사고 없기를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9		6		
	8		2				5	
	1		8		4			
3								7
8	5				2	3		
7								
4			9		6	8		
	3	8	5	2				

			1				5	
5	7					1		
				6				4
				9		8	1	3
3	4	2		1				
6			4					
		4						3
	9			5				

정답

1	9	7	2	5	8	3	6
2	3	8	9	1	6	5	7
9	2	6	8	7	3	1	4
7	1	3	2	4	9	6	5
8	2	4	6	5	1	9	7
9	6	5	7	3	8	2	1
6	9	2	3	9	7	8	1
2	8	9	1	6	7	3	5
3	7	1	9	8	2	4	6

9	7	2	5	8	3	6	1
9	3	2	1	9	6	7	8
1	8	6	2	3	7	2	9
2	6	9	8	1	9	7	3
2	9	7	3	9	2	6	1
3	1	8	7	6	2	5	9
7	2	3	9	8	5	1	2
8	2	1	6	7	3	9	4
6	9	2	2	1	8	3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상반기 ‘벤처투자 빙하기’ 지속… 업계, 옥석 가리기 집중

중기부, 작년 3분기 벤처투자
전년대비 40% 감소 1조252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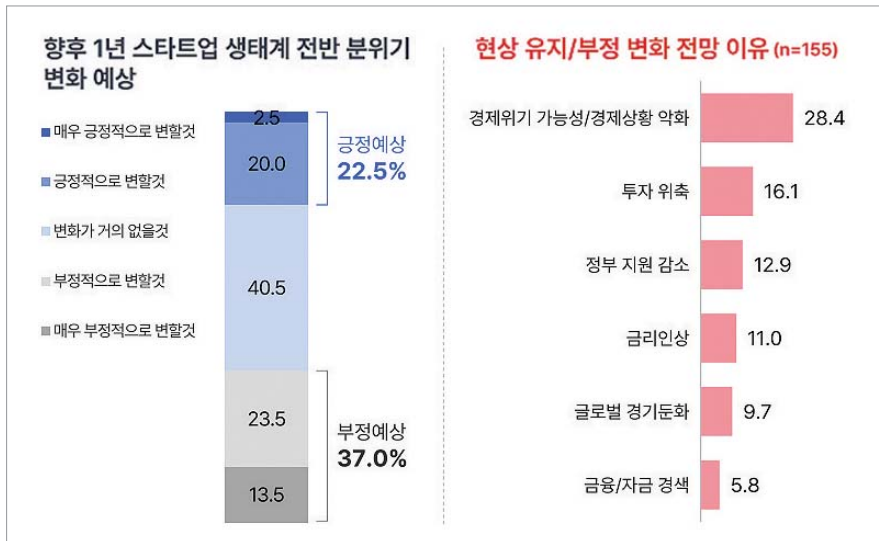
“증시 반등엔 연내 해빙 가능성”
투자업계, 로봇·자동화 등
고비용 인력문제 해결분야 투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계는 지난해 악몽 같은 한 해였다. 상반기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하반기부터 변화가 감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1~3분기 벤처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5조3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1년 1~3분기(5조3153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3분기(7~9월) 벤처투자만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3분기 벤처투자는 2021년 3분기(2조913억원)와 비교해 40.1% 감소(8388억원)한 1조2525억원이었다.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심리 악화가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Trend Report 2020)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분석 결과도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얼어붙었다. 실제 2022년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1765건, 투자금은 11조1404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투자건수(1186건)는 1.5배 증가했지만 투자금액(11조7286억원)은 5882억원(5.0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을 제외하고 매달 1조원 이상 유지하며 총 7조3199억원 투자금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반토막이 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대규모 투자들이 몰렸다”며 “투자 흑한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반기 예정된 대규모 투자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돈 줄이 바짝 마르자 줄도산 우려 속에서 생존 전략에 실패해 대규모 감원과 경영권 매각, 인수합병(M&A), 폐업 등을 피하지 못한 벤처·스타트업도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도 투자 빙하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업계는 최소 상반기까지 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퓨처플레이 최재웅 투자그룹장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고밸류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최소한 1년이 지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된다면 벤처·스타트업 투자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고 실적 위주로 기업가치의 재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해빙기가 올 것”이라며 “현재 기업가치 재조정이 고밸류 스타트업부터 이뤄지는 만큼 연내에 해빙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관계자는 “여러 지표들이 올해 더욱 심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속된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올해도 당분간 벤처 투자 빙하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투자업계는 벤처·스타트업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퓨처플레이는 고비용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표를 통한 성장보다 뚜렷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블루포인트는 딥테크다. 딥테크는 첨단 과학과 공학에 기반을 둔 기술이다. 센서, 로봇, 자동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콘텐츠와 브랜드, IP(지식재산권)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독보적인 데이터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 더 이상 투자만을 현금 확보의 수단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 서비스 재점검·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시장의 큰 흐름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중기중앙회, 참여조합 모집
월 최대 70%, 1인당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본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

24)’의 일환으로써 중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관련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은 오는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협회,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지정

이노비즈협회가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중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24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술거래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기술평가 전문인력과 평가모델, 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매년 공모해 신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협회

는 정관 및 내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 기술-인증평가단 발족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단위의 전문평가인력을 24명까지 확충하는 등 조직과 인프라를 정비한 바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중심의 수요를 발굴하고, 특허·기술특례·상장·연구개발(R&D)·기획지원·투자기관·의사 결정·금융기관 여신 확인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혁신형 기업들이 경영전략 수립이나 자금조달, 금융기관 투자 결정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은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중 최초로 기술평가기관에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기술평가 역량 확보를 통해 기술거래 및 자금조달 등 협회가 중소기업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서동중 중앙연구소장(왼쪽)과 신세계푸드 민중식 R&D 담당과 서울 을지로 한솔제지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제지

한솔제지-신세계푸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종이 패키지 확대 등 업무협약 체결

한솔제지와 신세계푸드가 손잡고 친환경 포장재를 공동개발한다.

24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푸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종이 소재 패키지 적용 분야 확대 ▲연포장 및 용기류 등 친환경 패키지 개발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및 R&D 기술 교류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 식자재유통, 급식, 외식, 베이커리 등 식품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가정 간편식 브랜드 ‘올반’, 외식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 대안육 ‘베러미트’ 등 새로운 식품 콘텐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온라인몰, 모바일

일 선물하기 등으로 판매중인 베이커아에 누보, 더 메나주리 등의 냉동 케이크 포장용 플라스틱 피지를 한솔제지의 종이 소재로 대체한 ‘친환경 케이크 패키지’를 선보여 제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케이크 패키지에 사용했던 친환경 종이 코팅지 ‘테라바스’를 비롯해 종이 연포장재 ‘프로테고’를 신세계푸드 제품에 적용하고 기존 플라스틱 소재가 주를 이루었던 식품용 패키지를 종이 소재로 대체해나갈 방침이다.

테라바스는 한솔제지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해 음식물 오염이 적고 종이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성이 강점이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고덕대교’ vs ‘구리대교’…한강 새 다리 명칭 ‘신경전’
▲“벗어나고 싶어요” 제주 항공기 모두 결항, 귀경객 발 동동 /사진 뉴스스

▲설 연휴 교통사고 56.7% 감소…음주 사고 사망자 ‘0명’
▲“300원이 아니라고?”…서울 대중교통 400원 인상도 검토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2년 구형” 조희연 선고 D-2…“유죄 나오면 진보교육 타격” /사진 뉴스스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해보니

외부청렴도 개선, 내부청렴도 하락

종합청렴도 점수 8.77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등급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77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나해에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65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5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 기관(Ⅲ그룹)은 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됐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는 9.44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경기도 신청사.

는 7.50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9.18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상승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외부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상승했으나, 내부 직원들의 평가 결과인 내부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3개 분야 평가 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2개 감점 항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8.77점이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등급을 달성했으며, 2등급은 ▲Ⅰ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Ⅱ그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차지했다. 나머지 기관이 3~4등급인 가운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소한의 부패방지 체계 점검을 위해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한 Ⅳ그룹 5개 기관(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전년대비 2.39점 상승한 9.46점을 기록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2022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책임(청렴도)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 설문 조사에는 도민 4839명, 기관 소속 직원 1577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외·내부 모두 95% 신뢰수준에 ±0.03%p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소득액 절반 2년간 지원
안심소득 1100가구 모집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내달 10일까지 접수 진행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거주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뽑는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첫 4일 동안(1월 25~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메타버스 서울서 '새해 동행 페스티벌'

서울디지털재단, 30일부터 나흘간
동행인증 미션 등 각종 이벤트 풍성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메타버스 서울 가상공간인 '월드시민랜드'에서 '새해 동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월드시민랜드는 서울디지털재단의 대표 캐릭터이자 로봇 직원인 월드(Worldly, World+Digital leaders)와 시민이 함께하는 가상공간이다. 메타버스 서울 앱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이번 '새해 동행 페스티벌'에서는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 ▲동행 인증 미션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 총 3가지 행사가 운영된다.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스타그램 월드시민랜드를 팔로우 한 후 페스티벌 홍보 글을 피드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동행 인증 미션',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은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동행 인증 미션은 매일 오전 11시 월드시민랜드 무대영상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마치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비타민, 떡, 치킨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다.

'새해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은 월드시민랜드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재단은 '월드 점프랜드', '산타길 찾기', '복쌈기' 총 3가지 게임을 준비했다. 이벤트 마지막 날인 2월 2일 각 게임의 1~3위에게 1만~5만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또 체험 후기를 인증 미션으로 남기면 순위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월드시민랜드 콘텐츠 개발·운영 ▲메타버스 관련 기술 활용 시민 창작자 양성 ▲메타버스 윤리·활용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도배 등 저소득층 집수리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모집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를 포함 총 17종이다. 시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집수리 사업 참가 희망자는 내달 1~28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르면 올 4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후 모습.

/서울시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도장·도금시설, 사업용 보일러 업체 등에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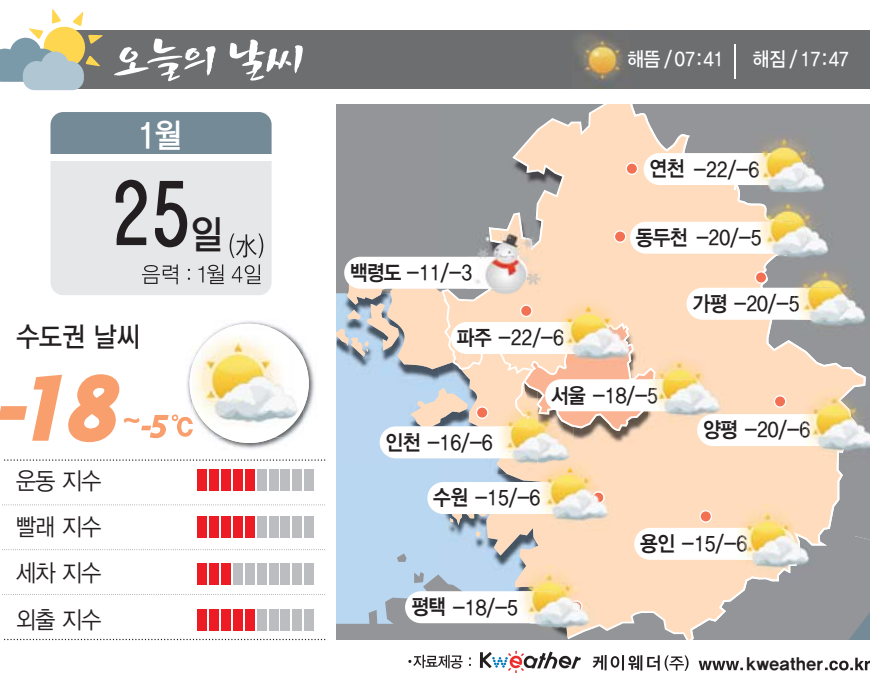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다.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예산인 32억4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오염물질 종류별로 2억

7000만~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월 25일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99개소다. 이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2351곳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서 경찰 과잉진압으로 또 흑인 숨져 논란 /사진 뉴시스
▲일본, EU와 핫라인 설치 협의... 중국 견제 차원

▲LA ‘음력설 총격’ 1명 추가 사망... 희생자 총 11명
▲엔사무충장 “LA총격사건에 대한 충격과 슬픔” 밝혀



▲美 “러, 우크라전 전력 보강위해 수만 명의 새 병력 투입” /사진 뉴시스
▲WHO “유해성분 기침시럽으로 어린이 300명 이상 사망”



[라이프]
다양한 볼거리에
완구·화장품까지
유통가 포스트 설 마케팅
L1



Life

[라이프]
건강에 맞까지
튀기지 않은 건면
판 커진다
L2



군사적 요충지 ‘봉수대’서 역사 기리고 영험 있는 ‘약사사’에서 소원 빌어볼까



되살아나는 서울

강서구 ‘개화근린공원’

서울 강서구 개화동 산17에는 한강 전망이 빼어난 개화공원이 자리했다. 이곳은 개화산에 있는 숲이 울창한 공원이다. 개화공원에서는 약사사와 미타사라는 2개의 사찰과 한국 전쟁 때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호국충혼 위령비’, 풍산심씨 문정공파 묘역, 봉수대 등을 탐방할 수 있다.

◆봉수대부터 산악기상 관측장비까지 ‘타임머신 여행’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 개화공원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로 나와 방원중학교 방향으로 약 483m(8분 소요)를 걸어 공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끈으로 명패를 달아놓은 느티나무가 공원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지나 나엽이 수북이 쌓인 숲길로 들어섰다. 나무계단 왼쪽 끝에 밤송이 몇 개가 놓여 있길래 알밤이 들었나 궁금해 양 발로 까봤더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밤송이를 까면서 산길을 올랐더니 ‘하늘길 전망대’가 나왔다. 강서구 방화동~개화동 일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왼쪽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이, 1시 방향에는 계양산이, 오른쪽에는 9호선 개화역이 파노라마 풍경으로 펼쳐졌다. 이날 개화산을 등산하던 어르신들은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구경하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하늘길 전망대를 지나 개화산 둘레길을 따라가다가 유럽 중세 기사의 투구처럼 생긴 ‘봉수대’를 발견했다. 개화산 봉수대는 서해로 빠지는 한강 서부와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조선시대의 봉수대다. 조선 전기 대표적인 관찬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에는 “개화산봉수는 동쪽으로 남산 제5봉과 응하고, 서쪽으로는 김포현 북성산과 응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강서구는 “한강 건너 행주산성이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여겨진다”면서 “만일 남해안에 왜구가 쳐들어온다면 전남 순천에서 봉화가 시작돼 서해안과 강화도를 거쳐 김포에 봉화가 올라오고, 이곳 개화산에서 남산(북쪽산) 제5봉수대로 신호를 보내 병조에 정보가 종합 보고된다. 병조에서는 매일 새벽 승정원에 알려 국가의 긴급한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화산 봉수대는 현 위치에서 약 250여m 떨어진 육군 제9175부대에 봉수대 터임을 나타내는 표지석으로만 남



지난 23일 오후 개화공원 하늘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서구 방화동, 개화동 일대 모습.

아 있었다. 강서구는 개화산 봉수대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 산 정상 인근에 높이 2m, 둘레 4m 크기의 봉수대 모형을 설치했다.

하늘길 전망대 통해 방화동~개화동 일대 한눈에
미타사, 약사사 2개 사찰 자리… 향화 발길 줄이어
봉수대·위령비 등 위치, 서울의 과거-현재 공존

봉수대에서 개화산 정상 방향으로 가면 태양광 패널을 보면서도 펼쳐놓은 듯한 생김새를 한 ‘산악기상 관측장비’를 볼 수 있다. 이 장비는 산림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의 기후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설치한 것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악기상 관측장비로 기온·습도·풍향·풍속·강우량·기압·지면온도 등을 측정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산악날씨를 제공한다고 한다.

개화산 정상에는 6·25전쟁 때 개화산 전투가 발생한 이후 장기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공간이 있다. 강서구는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되돌려 주고자 한국공항공사, 육군 제5531부대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위험감을 주던 방공호 같은 군사시설을 철거한 후 생태복원사업을 벌여 공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절 품은 공원

개화공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석불입상이 있는 미타사와

약사사다. 23일 오후 고려 후기 창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사사를 방문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약사사는 주릉산에 자리했다. 조선 후기 작성된 ‘양천읍지’에는 신라 시대 주릉이라는 도인이 이 산에 머물렀다 해 주릉산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나와 있다. 주릉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사람들은 이 산을 개화산(開花山)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산명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봉화를 받는 산이라 해 개화산(開火山)으로 일컬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1737년 송인명이 개화사(開花寺)에서 공부하고 재상이 돼 그 인연으로 절을 중수했다. 이 절은 냉천이 있어 병자가 목욕을 하면 오랜 병도 낫는 약수터라고 해 순조 이후엔 약사사로 불렸다.

약사사 중앙에는 일층 기단과 삼층 탑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석탑이 있다. 사람들은 두손을 합장하고 약사사 삼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었다. 삼층석탑 앞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다포계 팔각지붕에 첨가좌를 이고 있는 대웅전이 자리했다. 대웅전 안에는 긴 타원형 얼굴에 눈과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석불입상이 모셔졌다.

약사사 곳곳에 마련된 불전함 안에는 소원을 적은 종이가 붙은 촛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종이 위에 사업 번창, 건강 성취, 가족 화목 등의 문구를 적어 넣었다.

약사사 입구에 있는 안내 팸말에는 “법당에 봉안된 석불은 영험이 있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병이 치유되고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 향화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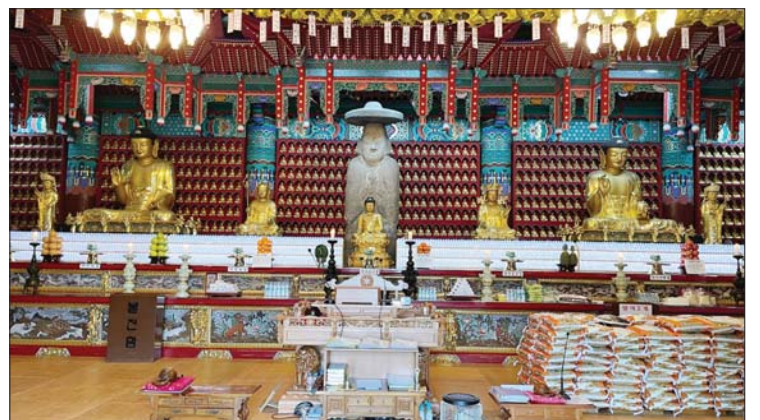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한 시민이 약사사 삼층석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고 있다.



개화산 봉수대.



약사사 석불입상 모습.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캐거 韓남자하키, 세계 7위 아르헨 잡고 13년 만에 월드컵 8강 /사진 뉴시스
▲ 황희찬, ‘中구단주’ 울버햄튼서 한자 대신 한글 운동복



▲ FA 늦어지는 NC 권희동·키움 정찬현… “몸값 부담에”
▲ V-리그 화끈한 올스타전으로 배구팬 마음 잡는다 /사진 뉴시스

▲ 음바페, 6부리그 팀 상대로 한 경기 5골… PSG 최초
▲ 손흥민, 3호 도움에도 아쉬운 평가… “영향 없었다”